朝鮮日報 夕刊 二十日(土)

聯盟特別理事會

來二十九日에開催

伊에紛爭審議

司會할리트비노프氏

【쥬네브十九日發聯合】國際聯盟事務局은 十九日午前全聯盟理事國政府에對하야 電報로써 來二十九日特別理事會를 召集할旨를通告하얏다 그리고리트비노프議長司會下에 特別會議를開催하야 伊에兩國紛爭을審議하기로 決定하얏다

伊『에』紛爭의解決은 聯盟理事會에依存

三國會談計畫은遂抛棄

【電通倫敦十九日發】伊에紛爭解決에 關하야 아브놀聯盟事務總長의 活動으로 一九〇六年의에디오피아에 關한三國條約의 精神에 基하야 過般來 英、佛、伊間에 秘密裡에 交涉이 進行되고 잇섯는데 佛國側이 主張한 解決原則에 對하야 三國間에 意見의一致되기는 不可能하게되어 近近 開催될라인 三國會談計畫은 抛棄되게된模樣이다 따라서 지금問題解決의 唯一의希望은 二十九日頃 開催될豫定인聯盟理事會의期間中重要國代表間에行할私的會談에달리게되엇다

東京↔羅馬 國際電話인터뷰

무氏杉村會見經過

【羅馬十九日發國際電話聯合】물솔리니首相이 東阿討征의뜻을 이르키어 全世界의視聽이 集中되어 잇는 이때에 羅馬駐劄日本大使杉村陽太郎博士가 十七日 베녜치아宮으로 뭇솔리니首相을 訪問會見하고 席上에서 杉村大使는 日本政府의意向이라고 伊太利強硬政策을默認한다는 確約을 與한것가튼印象을 주엇는데 本社는十九日午後零時二十七分(羅馬時間午前十時二十七分) 日本大使館에無線電話를걸고 親히大使로부터 뭇솔리니首相과의 會見經過를聽取하엿다 먼저記者는 國內事情을傳하야가로되

▲記者 最近大使는뭇솔리니首相과會見하엿다고하는데 會見의 眞相을述하야도 相關업거든簡單히 經過를說明해주기바란다

▲杉村大使 會見內容에對해서는 相當히 世間에誤傳되어잇는모양인데 眞相은 이러하다 내가 뭇솔리니首相과 會見한 것은 에디오피아 問題以外여러가지 問題에對하야 말하기爲한것이엇다 日本政府가 에디오피아 政府를援助한다는등 宇垣大將의말이 伊에兩國間에 戰爭이 勃發할境遇에 日本政府가 中立을維持키어렵다고하는等의 極度의 데마가傳하고 잇스므로 나는뭇솔리니首相에게 對하야 日本政府는 伊에兩國關係가 明白하지안흔 今日如斯한 事前의일을 알수는업스나 그러나 通商上의 諸問題에 對해서는 에디오피아에 關해서는 重大利害關係도 잇다는 見地에서 今後에 잇서서도 愼重히 注視하고잇는터이다라고 무首相의 質問에 應答한것이다 勿論 伊에間의 問題는 今後 어떠케 發展될는지 豫斷할수업스나 日本政府의 意向을 闡明하고 善處할생각이다

訓令의範圍不越

正當한解釋으로行하엿슬뿐

問題의杉村駐伊大使談

【電通羅馬十九日發】十九日廣田外相은 駐日伊太利大使아위치氏와 會見한때에 에디오피아問題에 關한杉村大使의發言을 修正하야日本은 에디오피아에對하야 重要한經濟的關係를 가지고잇서서 政治的으로도無關心할수업다는 旨를言明하엿다는 東京電報에對하야 杉村大使는記者에게 如左히말하엿다 나는本國政府의 訓令을내가올타고 밋는解釋대로이것을行한것뿐이오 나로서는조금도訓令의範圍를 超越하엿다고는 생각하고잇지안타

(寫眞은 杉村駐伊大使)

新聞小史 (壹)

政府廢止風說

乙巳時代新聞概觀(二)

民世學人

癸未以後 四五年間의 漢城旬報 獨舞臺時代를 甲申時代라고치고 建陽丙申以來 光武七年前後 日露戰役勃發以前까지를 光武時代라고하면 그以後 純宗隆熙四年 庚戌變局까지를 隆熙時代라고 할만하나 乙巳十一月의 保護條約締結과 및朝鮮人의 運命을 決定짓는 劃期的事件으로되엇스매 차라리 乙巳時代를表出하야그 題目을 지음이옳은것을·닫이게된다

×

乙巳時代의 最大關心事의하나는 무엇보담도 日露戰役이오 日露戰役의 關聯事項이다 世界最強의 帝政露國과 맛닥드리어仁川서싸우고·旅順서싸우고鴨綠江서싸우고 沙河 遼陽에서 싸우고 奉天서싸우고 蔚山冲에서 싸우고 黃海에서 싸우고·또 日本海에서波羅的艦隊와싸우는것등은 各報의外報欄을 빗겨하는바이지만 光武九年一月의 旅順陷落이 甚大한衝激을준것은 日本의 勝利가 이때에漸次 確實性을 띄우인까닭이엇섯다

×

內政問題에關하야 無數 巨大한 政治上의 變動과 그巨頭의 往來와는 日露戰報 그것과아울러 天下人心을 조리고 도송고집하든바이니 第十一回에 列擧한 諸事件만으로도 지금의 想像에 넘치는者이다 保護條約成立直時의 光景및그報道論評은 더말할것업고 그보담압서서는 光武八年甲辰 長森定吉의 山林川澤開墾權要求問題를 中心으로 朝野京鄕의不安 興奮과 및그政治的喧騷性의 紙面에反映으로 特筆할만한것이오 흥은 光武七八年 頃에잇서 度支大臣의 重職에 잇든 故 李容翊氏 京義鐵道의 敷設을 經議하든바이러니 그것조차 急設하는 軍用鐵道로서 日本側에 讓與되고 公州의人士 徐午淳氏 湖南鐵道만은韓國人의 經營으로 死守하자는 血誓의 發起趣旨書 가튼것은 資本主義의 企業의方式으로서는 아니오 末紀에 각가왓든 國民的感傷의 一斷面으로서매우 報館의붓을수그로히 한는者이다

×

그政治團體의 나타나고 會어지지한 紙面의 記錄으로서는 光武八年의 保安會가 마치獨立協會의 後身인듯이 行動하엿스니 그構成分子로는當時 新人의濟濟이곳하든 培材學堂 出身인 基督敎會의 人物과 官立漢語學校의 出身으로大部를채운것도 內外의注目을 끄으며 救國組織等이 橫濱에서 刊行하든 中國紙 淸議報에도 報道되는것 가튼것도 이제엔 前代史의 한토막이것고 前述宋秉畯 尹始炳等의 維新會와 李容九의 進步會가 合併하야 一進會로 일커러 흥은 일쪽부터 韓國의 日本保護論도 發表하고 日本北進軍의 後方의勞役을 負擔하는등에 미츠더니 光武九年五月에는 尹孝定 李儁等의憲政硏究會가 登場하엿고 翌年丙午 四月에는 昨述自强協會로 되어 一進會를 排擊하다가 이미內部大臣된 宋秉畯에게 治安妨害라고 解散되어 大韓協會로 組織을 變更하고 東農金嘉鎭氏 會長으로 推薦되어 會스스로 新聞을 刊行하엿고 各紙아울러 그運動을 報道宣揚한것은 이時代의 社會情勢를잘反映하는 者이다

×

光武十年丙午 二月一日 長谷川好道의 臨時統監代理 三月二日 伊藤統監의來任을 前後하야 駐京各國公使의 撤歸와 在外韓國使節들의 撤還가튼것은 紙面에 朔風이 나붓기는 記事이오 四五月의交부터 前參判閔宗植의 洪州義兵이란者가 老儒 勉菴 崔益鉉과 前郡守로 그의門人인 林炳瓚等과 聯結하야洪州城의·敗沒史를 남긴것가튼 것은 目下라면 各報의 特派員을 總集할듯한바이나 言論의災難은 今昔이 一般이어서 그艱辛報道의 자최를 머물른것이다 그러나 이時期의 言論으로서 後人의 注目을끄으는記事의一端은 光武十年四月中의 社說로서『辨政府廢止之風說』이라는題下에 皇城新聞이 統監은 在任하더라도 韓國의政府는 廢止되는것이 아니라는 呶呶한辨說을 슨데서 反諷되는 當時의物議 人情이다

現地는戰時氣分

伊國의東阿遠征軍 總數十萬四千人

【電通倫敦十九日發】伊太利의東阿遠征軍增派勢力總數는 七月六日까지의 通計가 十萬四千인것이 스에즈運河當局의 記錄에依하야 判明되엇다 右는 十九日英國下院의 質問에 答하야 호어外相이 發表한것이다 右中 第一線兵力인 戰鬪員은七萬五千으로 他에 軍屬及人夫等이 二萬九千을 算하고잇다

에國全土는遂戰時狀態에陷入

祖國危機絕叫코蹶起

【아디스아베바十九日發聯合】하일·세라시에一世의 國會演說을契機로 에디오피아帝國全土는 드듸어戰時狀態에陷하야人心은極度로緊張하고잇다 特히國都아디스아베바에는 過般來 數千의 壯丁이 雲集하고잇는데 此等壯丁은 街上에서 戰時訓練을 受하고잇다 또十一日에는 有識階級은 새로祖國愛라고 稱하는愛國社를 組織하야 全國에大衆運動을이르켜祖國의 危機를指摘하야 全國民의蹶起를 促하고잇다 同社는十九日國都에서國民大會를開催하고同社領袖는數千의熱狂한聽衆을 압페두고 차례로 서서 國境線의 危機를 强調하고 全國民은 有識階級의 範을보바더 皇帝에 從하야 戰場에 一命을 버리지안흐면 안될것을 强調하자 熱狂한 聽衆은 에디오피아帝國萬歲를 絕叫하고 皇帝와함께 最後의 一兵까지 祖國을 死守하겟다는 決議를하야 悲壯한 情景을 呈하엿다 에디오피아帝國은 極度로 個人主義的傾向이 强하야 有識階級은 서로 對立해잇는狀態이던바 今番의 國難을압두고 지금 完全히 擧國一致、하일·세라시에 一世指導下에 伊太利의 侵犯을 斷乎阻止할決意에 불타고잇다

에兩軍衝突說

【아디스아베바十九日發聯合】國境線上의 風雲急迫과함께 伊、에兩國衝突의 報道는 頻頻히傳하고잇는바 十九日伊領에리트리아國境에서 새로 兩軍이 衝突하엿다는 報告가잇다

藏相廿六日부터靜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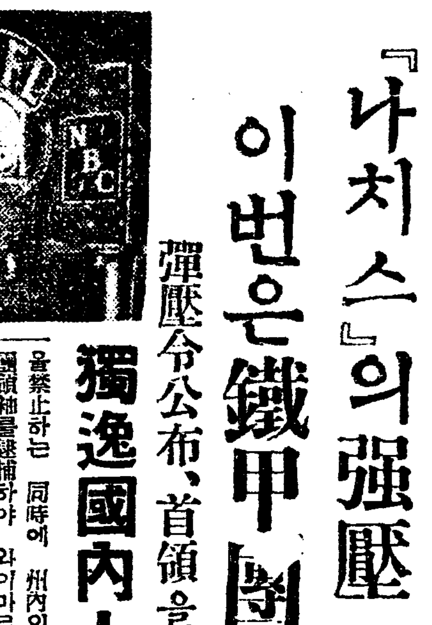
【電通東京電話】高橋藏相은來二十六日午前九時 二十五分 東京驛發列車로 葉山에向하야 御用邸에 伺候하고 天機를 奉伺한後 一色의 別莊에서 約一個月間 滯在하야 靜養하기로되엇다

『나치스』의強壓

이번은鐵甲團에

強壓令公布、首領을逮捕監禁

獨逸國內人心再不安



【와이마르十九日發聯合】추링겐州內相은十九日 鐵甲團強壓令을公布하고

一、鐵甲團의正服着用

一、鐵甲團의命令

을禁止하는 同時에 州內의鐵甲團領袖를逮捕하야 와이마르西北十五哩에잇는 收容所에投하얏다

【伯林十九日發聯合】過般來 나치스鐵甲團의 對立抗爭은 積極化하고잇섯는데 드듸여 警視總監의 更迭을 端緒로 나치스黨本部는 警察機關을 總動員하야鐵甲團 遮斷을 始作하얏다 卽一九三三年五月 나치스政權確立直後 名目上 合流하야 現在에及 하얏스나 依然 獨特한 正服을 使用하고 別個의 存在를維持하고 잇섯는데 나치스黨本部의 治安警察機構統一、猶太人的 反動活動 彈壓을 名目으로鐵甲團을 抹殺하야 完全한 黨專政의 確立에 邁進키로되엇다 그結果 제르테勞働相의 辭職을要求하고 國權黨勢力의 完全한退却을 보게되엇스므로 나치스의再度의 強權行使를 압두고 國內情勢는 相當히 緊張되고잇다

(寫眞은 쩨벨스)

人事·集會

▲崔昌學氏 二十日午前一時平北龜城邑內에서 遭內艱

▲生田淸三郎氏(多獅島鐵道株式會社長)朝鮮호텔投宿中落成祝賀人事次來社

▲菅野精三氏(同常務取締役)同上

通擁法發動케된眞意

外省中外에聲明

加奈陀政府의日本貨防遏로 報復關稅實施(自廿日)

【東京電話聯合】加奈陀政府의日本品防遏에 對하야 畢竟日本政府는 二十日附로써 報復關稅를 實施하기로되엇스므로 이에關한 日本政府의眞意를 明白히하기爲하야 如左한外務當局談을 發表하야中外에宣明하엿다

外務當局談

一、現下世界各國은 모든 手段으로써 貿易의 制限方法을講究하고잇슴에도 不拘하고 日本은 自由通商主義를 堅持하고 海外貿易의 障碍가되는手段의 實施를 探知하는同時에 前記諸國에 對해서는 友好的交涉으로 反省을 求하야 目下 國際通商을 軌道에 復歸케하야 人類의 幸福에 寄與하고잇는것은 다시 說明할必要가업다 今日 勅令에 依한措置는 日本政府의 關稅最大의 政策으로 日本品에 對하야 貿易上 非常한 利益을보고잇슴에도 不拘하고 日本品輸入에 對하야 不當한措置를講究하야 日本側에서條理를다하야 交涉하여도아모래도고치지안는나라로하여금스사로反省하게하려는目的에서나온것으로서 關係各國에 對하야 右日本의根本方針을 示하고通商政策擁護를爲하야 不得已한同時에例外的手段이고 日本通商政策에變更을意味하는것은 아니다 따라서前記勅令中에는 適用을바들나라의 條件을愼重히規定하엿다 그런데 現在 右에該當하는것은 加奈陀만으로 日本으로서通商擁護法을 發動할 밧게업시된것은 遺憾이다 지금에 그 所以를明白히 두고저한다

二、加奈陀는現行日英通商條約에 加入하엿슴으로關係上日加兩國은相互的으로最惠國待遇를許與하지 안흐면안되게되어잇다 그런데加奈陀는 日本品貨幣의低落을理由로 모든 日本品에 對하야各種統制稅를 賦課하게되어 從來의 兩國貨幣決定評價(百圓對四十九弗八十五仙)에 依하야 加貨에換算하야 이것을 課稅의 標準으로하고 또加奈陀生産品으로서 同級同種이라고 看做되는 物品에對하야 法定評價에 依한 換算價格과 現實市勢 百圓對 約二十九弗에 依한 實際價格의 差額을 所謂 爲替덤핑稅라고하야 附加하엿다 加奈陀의 法規에 잇서서는 右와가튼 爲替덤핑稅는 加貨보담도 五퍼센트以上程度의 爲替市勢가下落한 貨幣를 가진 諸國으로서 이條件에 該當하는나라는 거의 二十國이 나잇서 그產品에 適用하겟다는 言明規定하엿는데 現在 이것이 適用을 밧고잇는것은 日本外五個國의 商品에 限定되고 또 日本以外의 五個國의 對加貿易은 微微한것이오 또爲替덤핑稅가 附加되는 商品은少數이다 結局日本品이最不利益한待遇를 밧고잇다 또加奈陀政府는 國內産業을 保護한다는 理由로多數의 外國品에 對해서는 各商品別로 課稅價格과 現實價格과의 差額을 特別稅로서徵收하고잇서서 日本産인商品에對한 標準價格은 굉장히빗사게 決定되어잇다 日本當業者의調査한바에 依하면 爲替덤핑稅 又는前記特別稅를 附加하는 日本品이 加奈陀의諸稅를물고 輸入되는 價格은同種加奈陀品의 工場原價에比하야倍額以上에 達하는것도 不少하고 또이것을 日本의輸出價格에比하면 三倍乃至 六七倍에 相當하게된다고한다 이때문에 日本品의 加奈陀輸出은減少되엇는데 그中에는兩三年間에 十分之一以下로激減된것도잇고 오래동안加奈陀에在住하야 日加取引에 從事하고잇던 日本人商社는 取引不可能으로 最近 同國을 떠나서歸國한 者도 不少한 狀態이다 (以下朝刊繼續)

加奈陀政府서도 近日對抗的聲明

日本의通商擁護法實現에 深甚한遺憾意思表示

【오타와十九日發聯合】日本政府가 前後半年에 亘한 外交折衝을 中止하고 畢竟 通商擁護法을 發動하야 加奈陀品에 從價五割의 關稅를 賦課하기로 決定되엇다는 報道를接한 加奈陀政府는 深甚한遺憾의 意를 表明하고 當局談의 形式으로써 發表된 外務省의 聲明에 對해서는 加奈陀政府에서도 近近對抗的聲明을 發表하야 自國의立場을 闡明하리라고解釋된다 國內의輿論의議論한 非難을바드면서 베네트首相이 今後如何한對策에 出할는지는 右聲明이發表가되지 안는限判明키어려우나 政府當局에잇서서는 日本外務省의當局談에依한 外交折衝은決에欠裂에歸하엿다는意向을 表明하고非公式으로如左히漏洩하엿다

一、덤핑稅에對한 日本政府의抗議에對하야는 加奈陀政府는될수잇는대로 和協的態度에出하야最大限의 讓步案을 提示하얏다 그런데 日本政府는 右提案을 容許치안코 덤핑稅의完全한 撤廢를 專斷的으로 要求하게되엇다

一、加奈陀政府는 日本品에對하야서만 덤핑稅를 賦課하고잇는것은아니다 따라서 日本品에對하야 差別待遇를 한다는 非難은 當치안타 如何間 日本政府가 今回의 行動에 出한것은 자못 遺憾이다 政府는 今後 聲明書를 發表하야 自國의 立場을 闡明할 方針이다

八面鋒

『살어서 奴隷가되는것보다 죽어서 祖國을 守護하라』함은 『에디오피아皇帝의 勅語』

◇ 勝敗는 바둑에맛길지라도、黑人의血管에 正義의 붉은피가 뛰는것은 自然한일。

◇ 英佛伊三國이 우물쭈물하다가 如意치못하야 畢竟엔 또 聯盟에 手杳를 비는모양。

◇ 中國에서조차 여차직하면脫退해도조타하는 聯盟이 무슨힘으로 伊에紛爭을解決?

◇ 今日로서 市內各校休學、學生諸君 여름放學을 엇더케利用하라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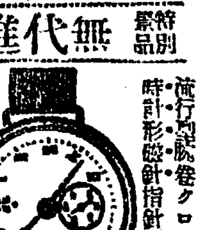
◇ 放學은放學이나、復習보다는차라리 山에물에 뛰어다니며心身을 굿게하라。

SPECTACLES 專門醫師責任診察 檢眼無料 京城鍾路 電話光化門 二六四三 東亞醫院眼鏡部

에통치과통두 一노진 滿藥舖外宇

セフランス醫專病院 檢眼無料 京城驛前 電本四七四〇 本校眼科敎授 本院眼科科長 擔任 檢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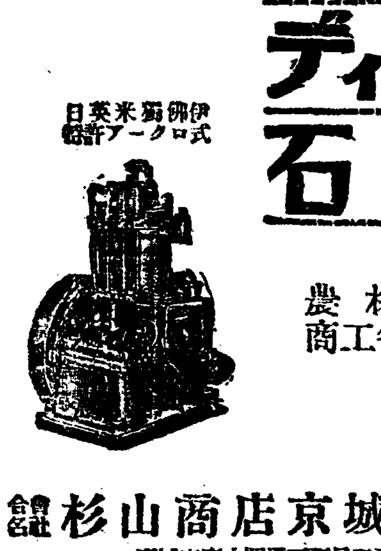
어린이가 물것에물이여서도 안도린을 발르면 염녀업슴니다
全國各藥房에서팝니다 本舖 朝鮮 柳韓洋行 京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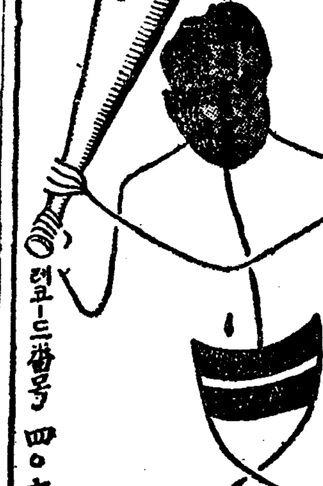
特別景品 無代進呈 實物寫眞 流行型腕卷クローム側優美時計形磁針指針正確保證付
●此特別景品은箱子에드러 ●書籍과同封包裝으로嚴重히小包 ●郵便으로送付함

景品進呈 『朝鮮日報』愛讀者에 明記하라 ... 特別景品無代進呈

便紙라면 무엇이나 다 아는 日本大好評 第一 完備 寶典 愛讀者大奉仕 特別景品付亂賣!! 手紙大寶典
二大附錄 第一附錄 三體草字辭典 第二附錄 願屆書法
定價三圓이나 大特價壹圓四十錢
發賣所 東京京橋區銀座西二丁目 東亞堂本店 振替東京二三八二一番



クボタの ディーゼル機關 石油發動機
日英米獨佛伊特許アークロ式
農林省認定品 商工省指定優良國產品
(呈送獻文)
合名會社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本局長 882番 4784番
本店 大阪市西區立賣堀南通町二丁目 電話新町 901·902·903·904·3127
支店 東京·名古屋·神戶·大連·奉天·臺灣 札幌·八幡



蔡·姜二大歌手비뎍로된 힛트盤 再現!!
流行歌 아득한千里길 蔡奎燁 故鄕을차저가니 姜弘植
레코-드番号 四〇六二
製造發賣元 日本蓄音器商會 콜럼비아레코-드

金銀 福 白金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電話一三一四番 (受信略號ヘイゼイイシフク)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팍버리되는 笹子의自動販賣器 飛行遊戲器와立體雙六(パチンコ)
飛行遊戲器 (各種カタログ進呈) 立体双六(パチンコ)
笹子勘治商店 東京市本所區厩橋一ノ二九 振替東京八四三七三番

グレート印 自轉車用 루도사링푸스 商標 Great 輕快 堅牢
神戶 山本サドル株式會社

罷業은如前히繼續 昨日보다就業者減少

鑛石分析督促의電報가千餘通이나遝至 製錬所側도唐慌罔措

【鎭南浦支局電話】 당지일광제련소대파업의 제팔일인 이십일에는 회사측으로부터 최후기일로 정해준 십구일에비하여 도리혀 백여명이나 출근이 적엇스며그보다압서 십구일 오후여섯시반 교대시간까지에도 회사측이 하수고대한데 반하야 당일아츰이상의취업은 보지못하엿다 이리하야 회사측의 강경수단은완전히실패되것으로 그들이 언명한바와가티 십구일까지에 취업을하지아니한 직공에 대하여서도 해고의선언을 아니한채 그대로 이십일을 마지하엿다 그런데회사측으로더욱 곤난한것은 파업이래십구일까지 전조선각광산으로부터 의뢰한바 광석분석결과를독촉하는전보가 천여통이나된다는것이다 회사측에서는 이것을조금도 처리하지못하고잇는터로매우당황해하는 중이다

警戒에奔走한警察 就業職工도取調 罷業應援隊潛入說로

【鎭南浦支局電話】 일광제련파업을경계중이든 당지 경찰에서는 이십일아츰에이르러 돌연히취업한직공수명을검거하야 동제련소소장실을치우고 비밀한취조를진행중인데 외지로부터 응원대가 잠입하엿다는정보가잇는일방 취업직공이 파업계속직공과 무슨 련락을취하고잇는 혐의가잇는가 의심하는이때라 자못주목이된다

朝鮮監理會의 夏期兩大會 外金剛에서

기독교조선감리회(基督敎朝鮮監理會)의총리원교육국(總理院敎育局)주최의제오회하기종교교육대회(夏期宗敎敎育大會)와제일회하기목사수양회(夏期牧師修養會)를 칠월이십오일부터 동삼십일일까지 외금강온정리(外金剛溫井里)에잇는기독교수양관에서 계속개최하게되엇다

移民候補地로 南北滿에三處決定 營口와柳河縣과北滿綏化에 二千戶明春에移植

명년도부터 실시하고저준비중인 백만조선인의 만주이민계획에압서 총독부외사과에서는 금년도외예산으로 이천호일만명의조선인을만주에이민하게되야 그간이민입후보지와 이민인수의 배정등을 협의하고잇는바 다음과가티 결정되얏다

一、현재의영구(營口)농촌에 이천사백정보의 토지를 더매수하야 이곳에 일천이백호륙천명의 이민을한다 그리하야영구농촌은 금년까지의 현재농경지이천사백정보를합하면 실로사천팔백정보의수전농경지에다가 일만이천명이나수용하게된다

一、봉천성(奉天省)류하현(柳河縣)에사백정보의 토지를매수하야이곳에 사백호이천명의이민을실시한다

一、북만수화현(綏化縣)에사백정보의토지를매수하야 역시사백호이천명의 이민을실시한다

이와가티금년도의 이천호일만명의이민은 영구와、류하와수화의세곳에 나노아실시하기로되엿는데 류하현의 사백정보의 토지매수는이미지주와 타협도되야불일간 정식계약을 맷게될것이며 또영구와 수화는이미실지측량을마치고 불원토지매수교섭을할터로 세곳의토지매수가끗나면곳수전을 맨들기위하야공사를시작할터이라한다그리고이민수송의실시는 금년안에농장의건설 즉이민의주택과사무소건설등의 완성을기다려 명년이월말이나 삼월초에 남조선의수해리재민과 서북조선의 랭해리재민등에서 선발하야 이민을수송하야 수용한후명년농사부터 짓도록할터이라한다

各官廳에서 午前만勤務 廿二日부터

이십이일부터 팔월이십일까지총독부이하 각관청은 집무시간을 변경하야 오전팔시부터 정오까지 사무를 보게되엇다한다

總督만나려든 陳情狂者 설유후석방

십구일오후한시경 사십세가량되여보이는 조선인남자한명이 총독부청사압헤 나타나서우원(宇垣)총독에 면회를강요함으로그곳순로경관이 고등계에 데려다가 취조한결과 그는충청남도례산군 대술면 장복리(禮山郡大述面長福里)사는김국천(金國天)(三○)으로그품속에우원총독에게진정할서류가발견되엇는데진정서는 연필과붓으로 보통학교아동들이 쓰는잡기장조각과 인찰지에 서투른글씨로 순언문으로쓴것이 열대여섯장이나 되는것이엇다 내용은 자긔는전긔고향에 처자도친척도 아모도업는터로 금년봄에천안(天安)성환(成歡)등지에가서 광부노릇을 하야겨우 연명하여오든중 몸에병이생기여 품파리도할수업고 그대로죽을수밧게업스니 총독이어떠케구제하여달라는것이엿다 그런데그는 정신병자로전에도 이런행동을한일이 잇슴으로 경찰에서는 잘설유한후 석방하엿다한다

上海黑色暴力團 嚴舜奉等을起訴 李虎奎와가치豫審廻付

상해공동조계에 근거를두고동지조선거류민회 부회장리용로(李容魯) 옥관빈(玉觀彬)씨등을살해한무정부 주의결사 상해한인청년련맹(上海韓人靑年聯盟)원엄순봉(嚴舜奉)리호규(李虎奎)량명이상해공동조계에서 일본령사관경찰에체포되어 경기도 경찰부로니머오던것을 종로경찰서에서 취조후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햇든바 그동안 촌전(村田)검사의취조가 끗나십구일에 치안유지법 위반、살인、살인미수등의죄 명으로 예심에 회부되엇다

그리고 동련맹원으로 미체포류기석(柳基石)등 열세명은 기소중지가되엇다

全朝鮮醫藥業者의 朝鮮醫藥研究會 다수의협력으로창립 醫藥業發展을企圖

조선각지 의사를망라한 조선의학연구회(朝鮮醫學研究會)는 지난십사일 경향각지의 다수관계자참석하에 발기인총회겸 창립총회를열어 탄생되엇다는데 이제그취지와 사업할것을 듯건대 의약당자(醫藥當者)는 여러가지로밧서불가분리의 관계에잇슴에도불구하고종래의소원한관계를유감으로 역이는동시에양자의회목상호부조의 정신을 고조하는동시에본회의사업으로서

一、의약량면의 연구발명급발견(發明及發見)을 촉진시키기위하야 적의(適宜)한시긔에연구소(研究所)를 설치할것

二、실제문제(實際問題)로서는현업의사(現業醫師)와 약업자(藥業者)와의 사이에 약품거래의 방법을 중개보다더유리원만한 수급관계(需給關係)를개척하야 허다한지장과 손실을제하야합리적개선을 도모할것등을 결정하고다음과가튼임원을 선출하고동회의발전을위하야여러가지로협의하고산회하엿다한다

▲會長 林[illegible] ▲理事 任明宰

黃河岸에死者一萬 廿萬名死線에直面

豪雨는依然繼續하고잇서 罹災者만二十萬名

【電通天津廿日發】 금일오전한시제남(濟南)으로부터 드러온 전보에 의하면 산동성(山東省)서남일대에범남된탁류에 다시 십팔일부터 십구일까지 호우가내리어 동지방민가의류실과 도괴가 부지기수요 리재민은 삼십오만에 사망자가 이만이상에달하며 아사와 익사에당면한자 이십만명에달하나 구조의방도가망연하다 그리고 탁류는 다시 동남방으로흘러 강소성(江蘇省)의북부를 범하고잇다

運動競技

歸國途上의 世界的拳豪徐廷權選手 來三十日에橫濱到着 朝鮮에는八月下旬에

渡米三年間에 世界빤탐級 第六位라는 榮譽를집머지게된 우리의 자랑인拳豪 徐廷權君은 그동안 歸國한다는 消息을 여러번 傳해오다가 이번에는정말로 歸國의途에올라서 멀지안허 朝鮮의땅을밟고 拳鬪팬들을 刮目相對케할것이라는 確實한消息이 들어왓다。

來三十日의 橫濱埠頭에는 마치 『스포-츠』旺이기나 한듯이運動團體들을 網羅하고 龍田丸이 入港하는바 이龍田丸에 우리의빗나는 徐君이米國에서오는 예일大學野球軍과 水上軍과함께 乘船하엿다。

君은 上陸하여곳 東京、大阪、名古屋等地에서열리는歡迎會에 臨하게되어잇서 그리운故國인全南順天에 도라가기는 아마八月下旬이될것이라한다

그리고 徐君의嚴親과 舍兄인 [illegible]兩氏는 그립든아들동생이 錦衣에싸여오는것을 하로라도일즉보기위하야 二十二日 順天을떠나橫濱埠頭로마중을간다고한다 이리하야 三十日의橫濱埠頭에는 『고요한아츰』의 나라의한 名選手를 한아가 榮譽의冠과燦然한 名譽를무거웁게 안고지고나타날것이다。(寫眞은徐廷權選手)

第六回全朝鮮男女水上大會 九月七日京城풀에서

朝鮮體育會 朝鮮水上競技協會共同主催의第六回全朝鮮男女水上競技選手權大會는 來九月七日(土)正午부터 京城運動場풀에서擧行하기로되엿는바 參加希望者는 來九月二日까지 參加金學生廿錢 一般卅錢을添附하야 京城鍾路一丁目 朝鮮體育會事務所로申請하기를바란다(競技種目其他詳細追後發表)

平壤留學生籠球 光高、平高를擊破

【平壤】 平壤OB籠球團主催의歸鄕留學生歡迎籠球戰第一日은十九日午後四時十五分 府內光成高普運動場에서行한바 强軍光高平高兩軍을 當當히擊退하고 連二次快勝하엿는데 이날의戰績은다음과가다

留學生對光高戰은 同四時十分부터金永吉、金[illegible]兩氏審判下에開戰한바 結局二十五對二十四로留學生勝捷(게임三十分間)

留學生 (13 12 / 11 13) 24 光高

留學生對 平高戰은 同六時부터羅淳寬、方元道兩氏審判下에開戰한바 結局三十八對二十三으로留學生連勝(게임三十分間)

留學生 38 (23 15 / 13 10) 23 平高

講武舘冒暑練習

市內慶雲洞에잇는 朝鮮講武館에서는 例年과가티 今年夏期冒暑期를當하야 오는二十五日부터八月二十三日까지 約一個月間每日午後八時로 九時半까지冒暑練習을行할터인데 舘員外의入門을歡迎한다고한다

米國水上軍과 예일大學日本에

【桑港十六日發聯合】 精銳들만網羅한米國水上軍 十五名은十六日午後郵船龍田丸으로 桑港을떠나一路日本遠征에 올낫는데 同船에는 日本遠征의 예일大學野球團도 끼여잇다

學父兄의面보아가며 兒童成績點數加減

市內某氏가證據를들어當局에抗議 學務課도各校에注意

이십일오전아홉시경에 시내모소학교 학부형인시내모관청관리고천모(古川某)가 경성부청학무과로 등강(藤江)과장을 방문하고 일장의 강담판을 한일이잇는데 그내용을듯건대 전긔고천씨의 아들삼조(三助)=假名=가현제전긔모소학교 삼학년재학중으로 입학년입학당시부터성적이조와서항상갑(甲)을마저 오든터인바최근에 담임선생이 갈린다음으로는 별안간성적이낫버저서 이번일학긔통신부(通信簿)에는평균이칠(七)점이므로 괴상히여여 시험지를모다조사해보릿든것이 하나도업는데 고사(考査)가 잘못된것이므로 곳시험지와 통신부를그대로 싸가지고 학교에가서 교장에게질문을하고 감독책임을 가진학무과장을 또 방문한것이라한다

근자에 학교입학문제가 어려운데딸아 학부형과 직원사이에 관계를맷는일이 흔히잇서 어떠한입학은말미아마 어떠한 정실이된다음에도 그관계가 존속되는일이 만히잇서 아동의성적을 고사하는데도 실지성적과 채점성적의차이가 벌어지는일이 만어서아동의학력보다 부형의얼굴을보는일이 흔히잇다고한다 이는소학교보다도입학난이심한조선인측 보통학교에만하서 부형간에은연중여론이 생긴모양이므로 학무과에서도이점에 특히주의식히기로하엿는데전기와가튼것은그러한례의하나이다

白晝大道橫行튼 五人團의少年"깽"

大膽無雙한日本內地人少年들 本町署에서檢擧取調

십팔일오후두시경에 시내본정서(本町署)에서는 시내앵정정(櫻井町)이정목을 중심으로백주에범행을 감행하든소년『깽』단일당오명을 검거하야류치시키고 목하엄중취조중이다 일당은한강통(漢江通)이정목 십팔번지 호부정(戶部正)(一九)과앵정정부근에배회하는전촌홍(田村弘)(一九)북전의웅(北田義雄)(一○)곡부정웅(谷部正雄)송강태랑(松江太郞)(一○)전부(假名)등의 다섯명으로서 각각단도(短刀)기타흉긔를 휴대하고시내앵정정이정목 소화(昭和)아파-트를 중심으로 부근을 배회하여가면서 통행하는청년、학생을 습격하야현금과 시계등을다수강탈하고 저항하는자에게는단도와 그외의흉긔로 위협하여목적을 달한일이 한두번이아니엿다는데 각피해자는 조사중으로로아즉 판명되지안하엿스나 다수에달하리라한다

天氣豫報

曇驟雨

颱風은石垣島의 南海上에잇서 徐徐히北進하고잇다 山東半島의低氣壓은 動하지안코高氣壓은 日本의南海上과 日本海로부터 朝鮮東海岸에뻐처잇다 滿洲、朝鮮、日本이모다曇天으로 東風이불고關東州、北朝鮮朝鮮海峽에는비가나리고잇다

昨日最高 二六、二
最低 一九、六
今日正午 二五、一

海蔘威에蘇聯國立 朝鮮人高等師範

今年十七名이처음卒業 朝鮮事情을熱心研究

모처에온 정보에의하면 소령(蘇領)『우라디오스톡』(海蔘威)에잇는 소련국립으로 설립되어잇는 조선인고등사범학교에서는 지난 류월삼십일에 극동조선인 중등학교교원 십칠명을 제일회졸업생으로 사회에내어보내엇다한다 이학교는 일천구백삼십일년에창설된 극동국립조선인 고등사범학교로 교수이하직원이 이십구명중에 십구명은 조선인이고도 조선인학생은 사백륙십일명으로 전부 공산당계통에 관계잇는청년뿐이라한다 최근에는 그들은 특히 조선안의사정을 연구하기 위하야 학교설비에는 조선지식실(知識室)을 특설하엿고 또조선인의 공산주의사업에 참가를 증명하는극동조선인 로동자의사회주의건설사업과 행정(行政)연구실들을 설비하야 재극동이십만조선인의 최고학부로서 매우 중요한지위를 차지하고잇다한다

救急常備藥 活命水 同和藥房 商標

自進寄附하엿든 갈돕會館賣渡說

名義를完全히移轉코저 同會委員들奔走中

조선녀자고학생상조회관(女子苦學生相助會館)문제가 아직도락착되기전에 또다시 고학생갈돕회회관이팔리게되엇다는풍설이전하야 고학생계에는물론 일반사회에큰『센세이순』을일으키고잇다 시내효자동(孝子洞)칠십번지고학생갈돕회관은 지금으로부터약십오년전에 고리완용(李完用)후작의 자진긔부에의하야 동회에서는이회관을 긔숙사로리용하야 수만흔고학생들의 편의를도모하여오든바 이지음리항구(李恒九)남작이조선에산재하여잇는토지기타재산을정리하는중에갈돕회관도역시어대로팔게되엿다는풍설이굉장함으로갈돕회에서는이풍설에듣래어사실여하를 무러보고저 면차래나 리항구씨를방문하엿스나 아직면회를하지못하엿다는데 일편 리남작가의사무원모씨의말에의하면 아직팔리지 안헛슬뿐아니라 그회관은고리완용후작이고부한것인즉 무리히 처리할리치는만무하겟다함으로 이회에서는 저욱히안심하고 이긔회에 소유권을 이전하야 만년지계를세우고저 지난십팔일에 그회관에서 림시 집행위원회를 열고 다음과가티 네명의 교섭위원을선정하야적극적 교섭을 하기로되엿다한다

交涉委員 張在九、李性載、姜鎬東 金周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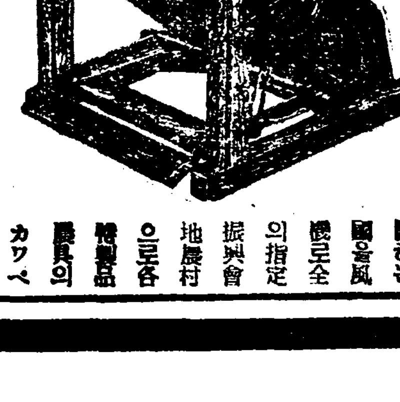
死因不明한 青年屍體 警察이調査

【永登浦支局電話】 이십일오전여덜시경 경인(京仁)가로 안태천(安泰川)갈탄교(葛灘橋)미테 약이십세가량된 조선사람인지 일본내지인인지알수업는 청년한명이 빠저죽은것을 통행인이발견하고 곳소관영등포경찰서에통고하여와슴으로 동경찰에서는계원이곳 통구(樋口)공의를더리고현장에출동하여 검시한결과죽은지 약오류시간밧게 되지안흔것이판명되엿는데 그는다만거문빗해수욕몽을입엇슬뿐으로 그근처에는 아모유품이업슴으로 신원을알길이업슴은물론이고 죽은원인조차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수업서경찰서에서도 자못고통중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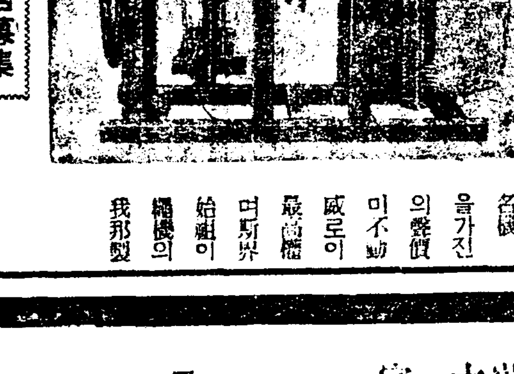
最古의歷史 最新의技術

二大名機의推奬

振興號稻扱機



原式製繩機



一郡一店特約店募集

我邦製繩機의始祖이며斯界最高權威로이미不動의聲價를가진名機

カワベ農具의特製品으로各地農村振興會의指定機로全國을風靡하는名機

原式製繩機 振興號稻扱機 鮮滿總發賣元

中川商店農具部

京城府蓬萊町一丁目二七番地 電話本局 長一一二九番

筆生

遠近男女不問自宅机上에서自手로輕快히되는趣味잇는勤人學生婦女子에好適한일年中無休永久履行眞實한분에賴依함募集書로申込次第詳報함

大和國郡山町 山鹿文庫

感冒解熱特効藥

實効散

불느면對答 먹으면낫는 感氣熱에 實効散

定價

東京市神田區明神下 本舖 師岡天然堂 振替東京二三七二

全國有名藥店에있음

NO 133

빅타-레코-드 8月新譜

漫唱 그리운 사당 安基永
新民謠 조기잡이 孫錦紅 李一男
流行歌 明朗한님 孫錦紅
流行歌 꽃길 수집은處女 金鮮英 姜石燕
流行歌 落花의恨 잊저면조와요 安明玉
映畵說明 클레오파트라 徐相弼

쪽너盤
短歌 沈淸傳 片時春 涉海窓之春 金如蘭
短歌 春香傳 玉梅紗窓 目梅自嘆 趙紫玉
童謠 모저귀・영감님 아가잠이・시냇물 金貞任
난센쓰 父子同樂 黃澈 秋豹蚌

訃告

崔昌學氏母親主驪州閔氏以宿患 本月二十日(陰六月二十日)午前一時於本鄕平安北道龜城郡龜城邑內自宅逝去玆以訃告

發靷 七月二十四日正午
永訣式 七月廿四日午後一時 平北龜城邑北門廣場
葬地 平安北道龜城郡龜城面院興洞先塋

昭和十年七月二十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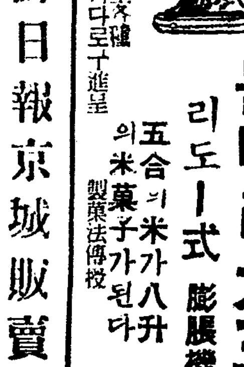
子 昌學 孫 昌秀 應龜 應浩 應天 東珍 東晉 昌根 昌賢 昌熙 昌倫 昌文 應禎 俊潤 恒樞 榮福

親族總代 友人總代 護喪

李元崔朴大韓谷金金
竹多相性喜十昇
福洙磨龍郞詰魯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話光化門二四九

돈버리大王 리도-式 膨脹機



五合의米가八升의米菓子가된다

新型容器가다로-丁進呈 製菓法傳授

大阪市東淀川區本庄西通一 兒島製作所

生殖器의缺陷에 ホリツク를쓰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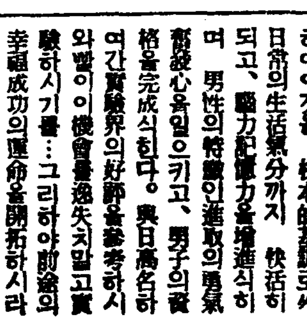
醫學博士五十餘名實驗證明推奬

日、英、佛專賣特許名譽金牌受領

ホリツク眞空水治器

人生의가장不幸하고悲慘함은 生殖器發育不全、萎小에從來의姑息的療法은間接的임으로效果가나타나지안코나 劃時代的인人生의福祉를開拓하는物理療法界의神聖한發明品으로써 海外까지 名聲

受領名譽金牌



器에直接物理療法을行한 劃期的發明의眞空吸引力을生하야서 新大發育을促進하고 同時에神秘한外의 性的作用에依하야 性的神經衰弱을 復活하고 手淫、過房의害、遺精、夢精、早漏、陰萎、遺曲을回復하고 機能을健全케하야이것을 根本的으로治療하며 男性의精力을增進식히되고、腦力과精力을增進식히

이글은本器는 理學的機構巧妙를極하고 形體는적으나輕便하고 效果는크다、一日一回式用하야서、生殖

非賣品 無代進呈 圖入說明書 葉書申込하면 【嚴名密送】

包莖 째지안코自己가秘密히成形함 登錄商標 ホリツク包莖安全器 金四圓 送料 內地十五錢 植民地四十二錢

ホリツク眞空水治器 金五圓 送料 內地十五錢 植民地一五五錢 送料十五錢增

○僞物잇스니 ホリツク文字에注意하시요

東京市芝區神谷町十八 東京新療法研究所 振替東京七七三九

정신병과 신경쇠약

구별못할것

보통신경쇠약과 정신병(즉 정 미치는것)은 잘구별하키어려운것입니다. 그런일을 을하를 신경쇠약으로 자살을햇다는말을하나 신경쇠약으로는 자살하는것이 거의 절대로 업다고해도 그다지 과언이아니고 결국 정신병의 발작으로서 그러케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어떤종세가 신경쇠약이며 어떠한 증세가 정신병이나하는것은

대체로 다음에 구별할것과 카롭니 정신병의 초긔증세는신경쇠약과비슷한것이만흠 집안에서 행동이 이상한사람이생기면는 신경쇠약이라고해서 그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잘관찰해서 속히 적당한처치를하는것이 조흡니다 그러면 이두가지병의증세는 엇더케다른냐하면

업는지를나서 병을속게할가이업습니다. 그러나 신경쇠약에걸린사람은 자긔병을곳치려고 애를쓰는것입니다.

一、미친사람은 얼골이 보통사람과 달르고 환자에 시달니나 신경쇠약은 언동에 모순이업습니다.

一、미친사람은 혼자웃고 혼자말을잘하나 신경쇠약은 그런증세가 업습니다.

아이들 거짓말은 꾸중이 무서워서

닥거세운다고 버릇이 고처지나요

어른부터 정직해집시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게되는 원인은 실로 여러가지잇는것입니다. 그러나 그중에도 제일중요한것을들면 첫재는 본능적으로 자긔방위(自己防衛)를 하려는데서 나온것입니다 가령말하자면 엇던아이가 심한작란을하엿다가 나종에생각해보면 그잘못된것이 반드시 어른에게 꾸지람을 드를것이라는것을 두려워해서

자긔의행동을

숨기는 거짓말을 하게되는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아이들이 자긔의 공상에끌려서 사실에맛지안는거짓말을 하게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어린애들이란 감정이 빠른것인만큼 자긔가 조하하는것과 실혀하는데에 대한 극단의 감정으로써 거짓말을 하는수가잇습니다. 가령례를든다면 자긔가 실혀하는음식을먹으라고한다면 일부러배가압흐다는등 엇더타는등하면서 거짓말을하는동시에 자긔가 질겨하는

음식을맛나게

되면 그와맛찬가지로 여러가지 구실을잡어서 다만얼마라도 더 먹으려고하는것은 우리가거의매일보는 현상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원인은 형식상으로 낫타난것이지마는 실상은 그환경이라든지 모든 주위의사정과 서로관련되여서 직접원인이되는 수가만습니다 가령하층사회의자녀들은 그양친의지도라든지 교육이완전하지못한만큼 낫분동무들의 유혹가튼것도만허서 아모리해도 거짓말을하게되는 긔회가 만습니다.

거짓말을가르

도한가지는어른이 아이들에게 치는수가잇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말을듯지안는다든지 성가시게 굴면 혼이들 순사가잡어간다든지 호랭이가물어간다고해서 어린애들의 공포심을자극함으로써 어른말을듯게하나 이것은 그당장에는 효ㅅ과가잇슬는지모르나 즉접으로나 간접으로나 어린애들의 거짓말하는것을 조장하는것이됩니다 그럼으로 이상으로 보면 어린애가 거짓말을하는것은 첫재가 정말거짓말인데 이것은 자긔자신을 방위하려는본능에서 나오는것이라든지 조그만한 자긔에게 리익되도록하려는데서

리해타산에서

나온것이고 둘재는 어려한 즉정적인원인을떠나서 다만 어린이들의 왕성한 공상력에끌려서 거짓말을하게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세재는 어른들이 잘못해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하게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여기서 이것을곳치라면 첫재로보담 예방이 대나흔것과맛찬가지로 첫재 양친이 먼저 정직해서 어떠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게할 긔회를주지안흘것입니다 그것은 첫재아해들이무엇을잘못한일이잇다고하드래도 넘우엄하게

벌을하지말것

이며 도한어린이들의 공상력을 발전식히는것은조흐나 결코넘우 극단으로 나가서 무엇이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라는것을 구별하지못하게되도록할것은 아닙니다 다시말하면 어린이들의공상을발전식히면서도항상현실적인것을정확하게아르켜주어야하는것입니다

進明女高同窓會

시내 진명녀자고등보통학교(進明女高)에서는 오는이십삼일오전 십시, 동교내에서 동창회를 열게되엿는데 교우되는분은 한분도 빼지말고 와주시기를 바란다고한다.

용서하면 그뿐일울 적은허물로리혼

데·노시의재판장모란씨의말

리혼하기쉬운거로 세계에 유명한미국네바-다주 『리노』의 리혼재판소판사『토-마스·모-란』씨는 과거 이십사년간『해결의신』으로서 근무해온사람인데 최근결혼과 리혼에대한 신문긔자의질문에대해서 다음과가티 배울것이만흔말을 하엿다고 합니다.

『판사로서 여러가지리혼문제를 취급해본내경험에의하면 행복한결혼생활의비결로는 적은일은 용서하는것이다. 일상 잘 조사해보면 일상 어려나는 적은일이 대개 리혼의원유가되여 잇는것임으로 만약 사람마다가 서로 적은허물을용서할줄 아리만치 지식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향상이되엿다면 결혼생활은 결코 부조화에빠지지 안을것이다. 이것은맛치 제자랑을하는것갓흐나 나는 작년 가을에 상처한 내안해와 이십구년동안이나 생활을가티햇스나 일직이 말닷툼한번도하지안엇다. 엇지서 그러나하면 우리는 일상이러나는 조그만한 불유쾌한일은 서로 애써 버리기로함에문이엇다. 그러나 일단 부부간에 리혼문제가일어나게된다면 그것은 재판소를기다릴것도업시 사실상으로 떠려진것이므로 벌써 두사람 사이에는 동거하는행복을 누릴수가업는것이다 따라서 이러한부부에게는 리혼을허락하는수밧게업스며 떠구나 두사람사이에 아해가업슬때는 문제도업는것이다. 나는 결혼에대해서는 인제말한바와가튼 의견을가지고잇스나 리혼을희망하는사람에게는 역시 관대하게 그것을허락하여오것이다』

그런데 이러케말하는『모-란』씨는과거십년간에 선고한리혼 건수가 매년평균 일천오백건에 달한다고합니다

혼부터나소고가 생각을자시지마 옵어지하시요 一、션나葉游

깨알가튼모터ㅡ

미국의웨인·한라ㅡ』씨가확대경을가지고 가진고생을 다해가면서제작한 정밀전긔『모ㅡ터ㅡ』입니다.『모ㅡ터ㅡ』를 가르치는 연필과 손꾸락에 비교해보아서 『모ㅡ터ㅡ』가 얼마나 적은것인가를 상상해보십시요. 아마작은『모ㅡ터ㅡ』로서는 세계에제일일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회중전등의 건전지로서 매일이천회식은도니까 제작한사람이얼마나고생하엿는가는 짐작할수잇습니다.

초종이나옵니다

문 금년이십오세난부자인데 이개월전부터 하로세번씩 홍문으로초종이 나옵니다 무슨까닭이며 양의무슨약을 복용하여야 되겟습니까 가르처주시기를바랍니다 (하동한학生)

답 초종병(蟯蟲病)입니다 치료는 전날밤에 피마자기름그 五、○그람을자시여 설사를하게하십시요 잇흔날 아침공복에 『맨마여쓰』(綿馬越幾斯)六、○을 여섯피랑으로 논아서 반식자시고십오분후 마저반씩자시며 그후한시간쯤하여 좌귀처방을자시요 이약을복용하는날은불을끄디든음료수와 기름끼잇는음식은자시지말고죽을자시게하시며치료후

短篇小說 만무방 (5)

金裕貞 作 安碩柱 畫

성팔이는 신이나서 떠들다가 그는동에어이가 질리어 고만벙벙하엿다. 그리고 얼골이해쓱하야 마주대고 처다보드니

『근래 자네 왜 그케 노하나 지내다 보니깐 그럭길래 일레면 자네보구 얘기지 뭐…』

하고 뭣갓함을 못하야 우물주물한다.

『노하긴 누가 노해ㅡ』

응칠이는 빼뚤것든 몸에 좀 더 힘을 올리며

『웅고개를 어째 갓드냐 말이지?』

『놀러갓다 오는길인데 우연히…』

『놀러갓다. 거기가 노는덴가?』

『글세, 그러케까지무롤게뭔가, 난 웅고개 아니라 서울을못 갈사람인가』

하다가 성팔이는 속이타는지코를훌쩍, 하고 날송을 겅게뱉는다.

이러케 나오는데는 더무를필요가 업섯다. 성팔이란 놈도여간내기가 아니요 구장네 솟친가뭐가 떼다먹고 한번다녀온놈이엇다. 만히사괴지는 못햇스나 동리평판이그놈과 가티다니다는 엉뚱한일 만난다 한다. 이번에 응칠이 저녁 그 섭수에 걸렷슴을 알고

『그야 웅고개라구 못갈리 업슬레ㅡ』

하고 한번 엇먹다 그러나 자네두 아다십히 거 어디야, 거기 바루 길이 잇다든지 사람사는 동리라면 혹 모른다하지마는 성한 사람이야 웅그개엘 뭘 먹으러 가나, 그러치 자네야 심심하니까, 하고 압홀 짝 눌러 등을 떠본다.

여긔에는 대답업고 성팔이는 덤덤히 처다만본다. 무엇을 생각햇는가 한참 잇드니 호주머니에서 단풍갑을 끄낸다. 우선 제가 한개를 물고도 하나를뽑아 내대며

『권연하나 피게』

매우 돈질한 낫을 해보인다. 이놈이 이에 밝기가 물지 밝은 섬팔이다. 데없이 권연 하나라도 선심을 쓸 궐자가 아니리라, 생각은 하엿스나 그럿타고 예까지 부르대는건 도리어 저의 처지가 불리하다. 고것은 짜정 그 손에 넘는 줏이니

『아 웬 권연은이래ㅡ』

하고 슬적 농치며

『성냥 잇겟다?』

일부러 불까지 거대게하엿다.

응칠이에게 액을 떠넘기어이용할라는 고 야심을 생각하면 곳달거들어 다리를 꺽거놔야올흘것이다. 그러나 이마당에 떠돌어대고보면 저는두려누어침뱃기. 결국 도적은 뒤로잡지 압해서엄른는법이 아니다. 동리에 소문이 퍼질것만 두려워하며

『여보게 자네가 햇건 내가햇건간』

하고과연 정다히그 등을툭치고나서

『우리들만 알고 동리에 말은 내지말게』

하다가 성팔이가 이말에 되우 놀라며 눈을 말뚱말뚱 뜨니

『그까진 벼쯤 먹으면어떤가ㅡ』

하고 껄껄 우서버린다.

섬팔이는 한굽접히어 말문이 메엿는지 얼굴을하야 입맛만 다신다.

『아예 말은 내지말게, 웅 알지ㅡ』

하고 다시 다질 때에야 겨우 주저주저 입을 열어

『내야 무슨 말을 내겟나』

하고 조금 사이를 떼어 또

『내야 무슨말을…… 그건 염여말게』

하드니 비실비실 몸을 돌리어 저 갈길을 내것는다. 그러나저 압고개까지 가는 동안에 두번이나 돌아다보며 이쪽을 살피고 살피고 한것마는 사실이엇다.

응칠이는 그 꼴을 이윽히바라보고 입안으로 죽일놈, 하엿다. 아무리 도적이라도 가튼동요에게 제 죄를 넘겨씌랴 함은 도저히 의리가아니다.

그건 그러타치고 웅오가 더 따하지 안흔가. 기껀 힌드러지어노한다 남존일 한것을 안다면 눈이 뒤집힐 일이겟다.

이래서야 어듸 이옷을 벗어 보겟는가ㅡ

확적히 증거만잇서 이놈을잡으면 대번에 요절을 내리라결심하고 응칠이는 침을 탁 뱃라던지고 산을 나려온다.

어찌하리까

미곡상그만두고 의사가될까하오

문 저는금년이십사세의남자이온대 오년전부터 미곡상을 경영해내려옵니다. 그런데 자미도업슬뿐더러 별 신통한 수를보지도못햇습니다 이제새삼스럽게냉정히생각하고 보니본래상인은 기질이 민속하고 시세에눈이 밝어엉뚱한수단을 벌득벌득 잘써야되겟는데 불행히 저의성격이이러치 못한것을 깨닷게되엿습니다그러나 이와다른방면 의학방면에는 취미가만허서 약품에대해서나 병리에대해서는 대단한연구심이납니다. 주제넘은 말슴갓사오나 저는 의학게에나서서 의술로 세상에봉사하면 성공할것 갓사온대 지금부터라도 모든것을내던지고 전심으로 의학을전공하면 어떠켓습니까? 그리고의학입문에 적당한서적을가르켜주시는동시에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지안트라도 이와동등의 자격만잇스면 의사될수잇는지 기로에서 방황하는 저를인도하소서 (慶州一讀者)

자신만잇다면야 성공하고말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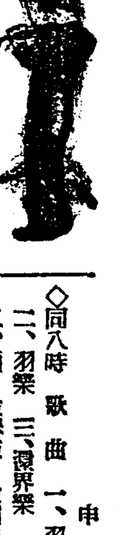
답 말슴을 드리자면 두수업시 애초에발을잘못다드신탓을할밧게업습니다 그러나 이탓으로당신이 당신을탓할수잇지만 원망할수업는탓입니다 세상사가 꼭제마음에 맛는것, 제마음대로 되는수가 잇습니까 부득이한사정, 피치못할 그때형편이라는것이 잇습니까요

오년전미곡상을 시작하실때는무슨주견이엇섯드라도 지금 예와서『나아갈길』이 빤히보이거든 그길로한번나아가보시는것이 대장부의일입니다. 미곡상을그만두고 의사노릇하는것이조흘까닭잇습니까. 무르시나마나한노릇입니다. 용기만잇거든 그길로나가보십시요. 망사리면어든일기도 주리끼기쉽고 잘될일도 혼자부지런하지못해 지기쉽습니다. 그러나하시든미곡상은 손해안보도록 잘정리하신 다음에 출발하시는것이 조흡니다. 의학에관한 서적은 얼마든지 잇스니까요 책업슬 걱정은 마시고, 또 의학전문을 졸업 못하섯드라도 『의사시험』이 해마다잇스니까 여기에 파쓰만되면 의사면허장은 주는것, 어쨋든 공부하기에달렷습니다. 그런데 한말슴할것은 시험에 파쓰햇드라도 (의학교졸업햇드라도 마찬가지니다)곳개업하지말고 큰병원에서 몃해동안 림상(臨床)연구를 만히한다음이 조켓습니다. 왜그런고하니 의사자신도그러켓지만 사람마다다 목숨이중하니까요 (엥똥生)

고령자구락부

미국오크라호마시에는 고령자구락부(高齡者俱樂部)라는것이 잇서서 매월에한번식 로인들이 모혀서 사회문제라던지 정치문제에대해서 고담준론을하는것이 장관으로다가지못할만치 원기왕성한데 입회자격은 칠십세이상이라고합니다.

사진은 그구락부중에서도 제일 나이만흔로인들로 좌편부터 『죄ㅡ좌ㅡ아렌』옹(백십세)『에리자베쓰·스미스』부인(백세)『죠세프·다길』부인(백오세)『활스·마크스』옹(백세)



二十日 (土曜)

◇午後六時三〇分 레코ㅡ드音樂

◇同六時五〇分 兒童時間新聞

◇同七時 常識講座 鑛石處理法 金聖浩

◇同八時 農村講座 夏節農事(二)에對하야(一) 金聖浩

◇同八時三〇分 海洋이야기의밤 京農敎諭 金雄珏

一、銀波 庾秋岡
二、迎日灣 申鼎言
三、 尹白南

二十一日 (日曜)

◇午後〇時五〇分 滿洲로부터 音樂(哈爾賓으로부터)

◇同一時二〇分 俗曲 一、雨淸 二、羽調도도라 三、靑春歌 四、山念佛 五、방아타령 六、아리랑 笑琴 池龍九 洋琴 崔誠 細笛 高載德

◇同六時三〇分 兒童劇 老人과 그딸 全一景 新興童人會 (配役) 어머니…金信福 王禮 (그의딸)：鄭慶南 惠順(王禮동무)…張慶順 洞里老人…文烈 癸福(老人의아들)…鄭龍得 容爾(老人의딸)…韓和子 指揮 鄭英鎬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話

◇同八時 歌曲 申仁植 一、羽調頭擧 二、羽樂 三、環界樂 四、界樂 五、編 金春姬 金蘭珠 洋琴 金相淳 大笒、金永根 杖鼓、金一宇

◇同八時二五分 農村振興懸賞募集當選歌(京城으로부터) 農村振興릴레ー放送(釜山) 一、(一等當選)…作詞…洪蘭坡作曲 二、(二等當選)…林湖作詞…李冕相作曲 三、(三等當選)…車輪重作詞…同 權永傑 趙錦子 伴奏、DK管絃團

◇同八時三五分 講演=釜山公會堂으로부터=慶尙南道産業部長 朱榮煥 講演=同=同昌寧郡高岩面長 盧泳奐 우리部落의更生 (一) 移秧歌 (二) 夕陽歌 (並唱)…(東萊郡)尹順心 裴鏞植 (三) 農夫歌…崔翠香 申翠香

二十二日 (日曜)

◇午後〇時五分 愁心歌外 一、愁心歌 二、역금 三、孔明歌 四、안산打鈴 五、뒤산打鈴 鄭錦紅

◇同一時 婦人講座

◇同六時三〇分 童謠合唱과獨唱 一、齊唱 우리동산 二、獨唱 시골밤 三、齊唱어린동무 四、同무동의노래 五、獨唱어름비 六、齊唱자장가 七、獨唱별은밤 八、齊唱호롱불人形 九、同잠새學校 牧丹會 伴奏 趙京熙 指揮 吳千順

◇同六時五五分 經濟解說 全弘燮

◇同八時〇分 音樂講話 朝鮮音樂基本律動과伽倻琴散調에對하야 (一) 李基世

◇同八時三〇分 怪談 九龍山의怪奇 金永煥

◇同九時 獨唱 一、芬蘭의森林 二、오ー스산나…米國民謠 三、초생달…權泰浩作曲 四、예루살렘…멘델스존作曲 五、알로하오에…하와이民謠 六、思鄕歌…權泰浩作曲 權泰浩 伴奏 金聖南

◇同九時四五分 唱劇調와伽倻琴併唱ー釜山公會堂으로中繼ー 一、唱劇調 王曰然하다 二、短歌 大觀江山 三、伽倻琴併唱 客來問我 蓬萊券番 朴秋月 同 林月仙 同 朴雪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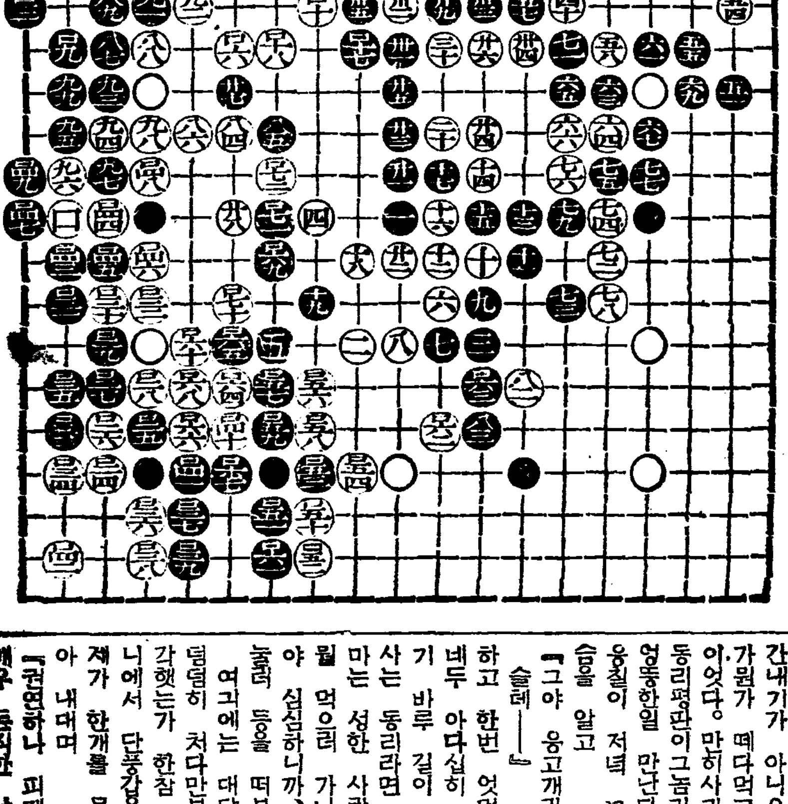
曆

七月廿一日 (日) 陰六月建癸未(小)廿一日 戊氏·木·畢·平

●土王用事
▲小暑 八日(陰六月初八日)
▲初伏 十三日(陰六月十三日)
▲中伏 廿三日(陰六月廿三日)
▲大暑 廿四日(陰六月廿四日)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0】

白 閔仲植
互先黑 丁奎春



●【一五三】丑의六 ○【一五四】子의六 ●【一五五】辰의四 ○【一五六】丑의四 ●【一五七】寅의四 ○【一五八】丑와五 ●【一五九】寅의五 ○【一六〇】辰의三 ●【一六一】寅의八 ○【一六二】壬의五 ●【一六三】辛의四 ○【一六四】卯의四 ●【一六五】卯의三 ○【一六六】辰의五 ●【一六七】卯의六 ○【一六八】辰의四 ●【一六九】寅의二 ○【一七〇】卯의三 ●【一七一】寅의十 ○【一七二】寅의九

◇蔡槿文氏評 白이 黑包圍에 網羅가 重疊하니 黑의 脫出經路가 正히 窮하다 俄頃에 黑이 生路잇스믈 暫時忘却함이엇다 黑이 辰의 十一로 置하면 白이 破戶할模樣으로 卯의十一로斷하고 白을 斷하고 寅의 十으로 闖出하야 丑의九로 白을斷하고 丑의十一로 白을 又逐하고 黑一戶口完成될 方針이잇지안흔가 機會를 一失하엿스니 不可不奕의 十六白將을 接戰이야 하여보렴은다

效力絶大! 小兒用 마구닌제리 마구닌錠 회충약 (マクニン)

小兒의 蒼白한 얼골은 大槪蛔虫 寄生의 標識

元氣가업서보이고먹어도 살이올르지안코間或배가 압퍼하며或은多少의身熱이잇스며補藥을멕여도아모效力도업는것은蛔虫이 寄生된것이오니산도닌보다優秀한마구닌을멕여서 蛔虫을驅除하시오

마구닌錠 三十錢、七十五錢 一圓三十五錢
마주닌 二〇錢、五〇錢
제리ー 一圓、二圓
十錢마구닌錠(大人一日量)

MK—57 京城西小門町 藤澤友吉京城支店

自然 그대로의 潤이나는黑髮로染色됨니다

赤毛染 ナイス 나이스

染毛劑中의白眉、斗試用하시랴 色澤은不變하고染色簡便도廉價

赤函 二十五錢

各藥店にあり

수 治 水 (コン チ スイ)

主効 虫齒痛。齒根痛。 나속이쑤신것。 神經痛。肩臂로因한 齒痛

(ピンセット治療附) 二十錢、三十錢、五十錢

發賣 丹平商會 ○各地藥店にあ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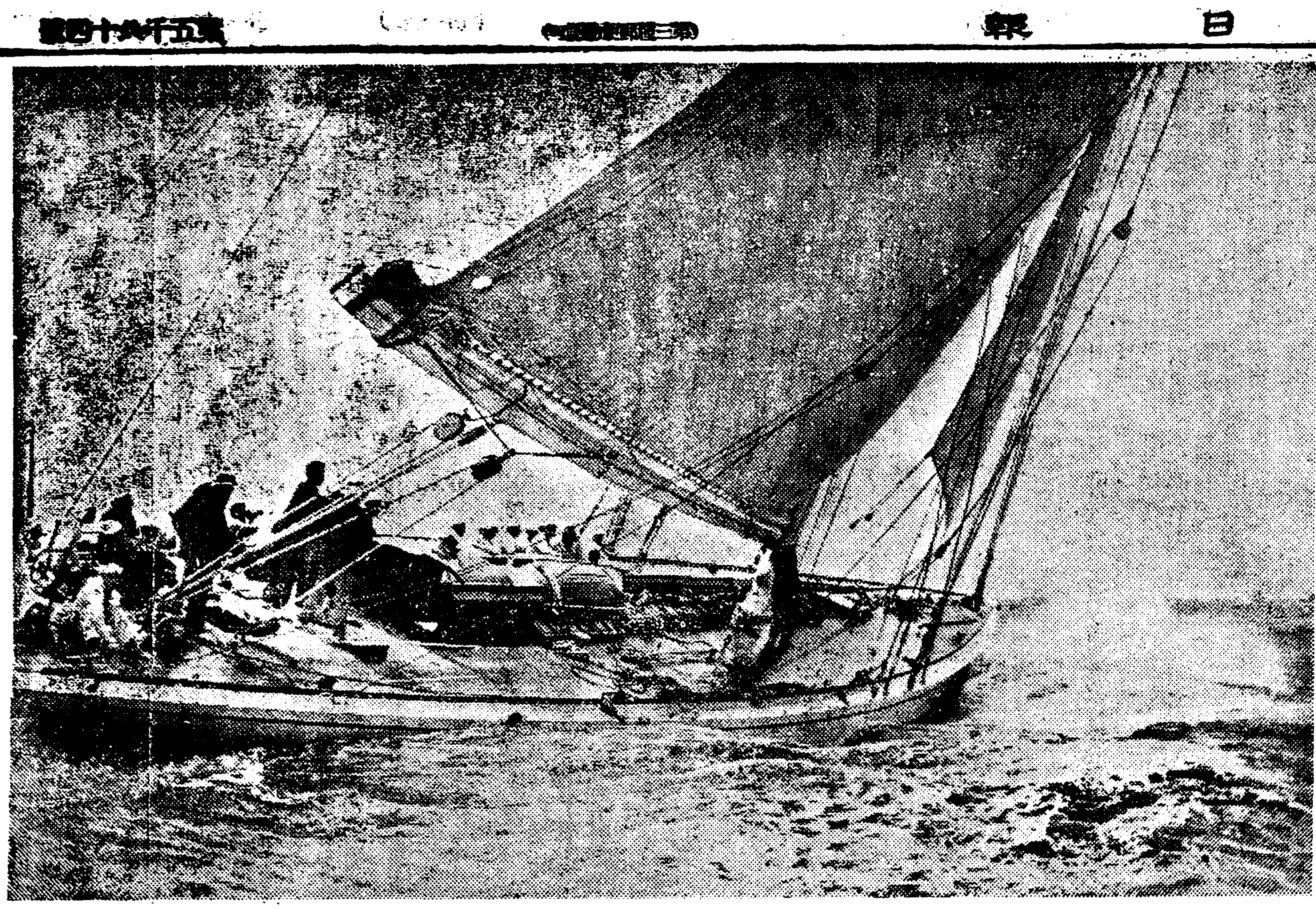
皮膚病에 アスター 아스타ー

아스타ー는皮膚病治療의要素인 殺菌=消毒=收斂=의 作用을完備하고그强力的殺菌力과掻痒症에對하는作用及、局部收斂作用은實驗者들의다ー감지할 皮膚病으로서効力偉大한것이다

主効 마른음、음부습진 무좀、헌언두이、비듬 其他태독、부룸、各種濕疹에서제를 安全도迅速하게快癒케함

三五錢 一五〇錢 各藥店에 販賣す

A231



學藝

諷刺文學論【五】
文壇危機의 一打開策으로서
崔載瑞

自己諷刺는 무엇보다도 現代의産物이다. 前代에생겨날수업섯든 現代의獨特한 藝術形式이다 웨그러냐하면 自己諷刺는 自意識의作用이고 自意識은

【自己】 分裂에서 생겨나는데 이自己分裂은 現代에와서 비로소 決定的으로 形體化하얏기때문이다 即 밥을먹고 잠가를듯고·애를낫고·觀劇와交際하는自我와 잇다금씩 이自我를떠나서 먼곳에서 或은 놉흔곳에서 回顧하고 觀察하는 또하나의自我—이두自我가 大部分의 現代人가운데 도러잇서 所謂 『洞窟의內亂』을 일으키고잇다. 우인담·루이스는 이것을 自我와 非我라고일컷고 非自我는 늘自我의敵이라고하고 또 自我와非自我의

【兩極】 사이 作用과 逆作用이 交流할때에 마츰 電氣모양으로 우숨(笑)의 스파ー크(火花)를 일으킨다고 말하얏다. 이곳에 自我라고하는것은 우리들의存在 그물건이다. 우리는 大部分 外部의힘을비러 存在한다. 따라서 이自我는 될수잇는대로 外部影響에 適應하랴고한다. 그리고 또生存은 即行動이다. 그行動이 純全하면 純全할사록 生存은 完全하다.

【純全】 한行動이란 反省의 缺無이다 그래서 自我라는것은 盲目的인 行動의 뭉치라고 할수잇다. 한조각의 광靑을爲하야 한잔의술로말미암아 한마듸誤解가原因이되야 우리는 얼마나 卑陋한或은滑稽스러운 或은어리석은 行動을하는가? 그러나 自我는 盲目的이기때문에 이것을自覺치못한다. 그러나 萬一다른사람이 다른立場에서 이것을본다면 그는奴隸이고 人生의 피에로(道化役者)이고 愚劣漢일것이다. 여기에

【諷刺】 가發生할 機運이생겨난다. 그러나現代人에잇서이가튼觀察者는다른사람에求할必要가업다. 그는自己自身가운데에 이가튼觀察者를가지고잇기때문이다. 그것은即 非自我이다. 다시말하면 批判的自我이다. 現代人은盲目的으로行動하는다음瞬間 非自我로하야금 이를觀察하고 批判하고 嘲笑케한다. 이것은人生의最大悲劇이다. 그러나 그것은現代人이避치못할運命이다. 現代人이 自己自身에對한忠實과 날카로운

【理智】 의두矛盾을包容하고 잇는限 이分裂의悲劇은 正直히表現하는 外에 달리處置할道理가업슬것이다. 이리하야自己諷刺의 文學은 現代的 使命과아울러 魅力을가지고잇는것이다

악가 나는 諷刺文學이 一種의 復讐文學이라고하얏다. 이말은自己諷刺文學에도 適用할수잇는말이라고 생각한다. 過去에잇서諷刺는 어떤個人이나 團體에對하야 或은人類全體에對하야 否定的으로 復讐하얏다. 그러나 이것은

【人類】 나社會가아작도 批評의 對象이 될만한 價値가 잇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改善의 餘地가잇다고 보앗기때문에 可能하얏든것이다. 萬一에 人生이나社會에對하야 完全히 虛無와無價値를늣긴다든가 或은 改善에絶望하야 아조絶望한사람이 잇다면 그는 발서 諷刺의對象으로서人類나 社會를 돌지안을것이다. 그代身 諷刺의메스를 自己自身으로 向한다. 일흔의 失樂園을 보면 神에 反逆하야

【失敗】 한사탄(惡魔)은 神에對한 가장効果잇는 復讐方法으로서 神이새로創造한 人間—即 아담과 이브를 墮落식힐陰謀를 案出하얏다. 自己諷刺의心理는 이사탄의 心理와 共通되는點이업지안을것이다.

最後로 自己諷刺에關한 또한가지 重大한動機를들겟다. 그것은即 人生의再出發이라는것이다 現代人이 무엇이나

【思想】 을가지고 잇다고 한다면 그것은 [illegible]主義일것이다. 宇宙와人生의 對한從來의 解明이 虛僞이엇다는것을 깨다를때 그리고 그에代身할 새로운理論體系가發見되지안엇슬제 사람은 自己自身의批評的眼目으로도라간다. 그것은懷疑의大海우에漂流하는 모든文明의破片中 知覺할수잇는가장確實한存在이기때문이다. 이것은『떼칼트』의 哲學을 보아도 알것이다. 現代에 또다시 한번 떼칼트가出現하겟는냐함은 別問題로치고 現在文學이 自我에 對하야 가장 眞摯하고도 冒險的인

【探求】 를하고 잇슴은 숨길수업는 事實이다. 그리고 이自我探求가 위선自己諷刺의 形式을 取하야 나타나는것도 自然한 道理라할것이다.

나는 넓지는못하나마 外國作家의 作品과 評論을 읽을때에 自己諷刺를 늦긴다. 그리고그 그것이結局 現代社會에서必然的으로發生한것이라고 생각하는者이다. 諷刺文學을 우리社會에待望함은果然一場의 幻想에지나지 못할까? 끗

夏日雜草 (5)
自尊心·潔癖 ＝(C君에의回信)＝
蔡萬植

그뒤 웬마큼 時日이 지나고 나서 厥女氏가 나를 저바리게 될 바로前에 마침 차저간 나의 친구더러 『血書까지도 햇소 그러나 眞心은 아니엇소』 라고 厥女氏는 말하드라말을 그 친구에게서 드럿소

C君 이러한 例만 가지고라도 女人의마음—더 나아가서는 當世의人心이 얼마나 惡辣하고 앞뒤가 엉뚱을 짐작할수 잇지안소 血書를 眞心으로 한것은 아니라고 나의厥女氏는 말햇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오 血書까지한 맹세를 깨트린것이 조곰은 마음에 거릿긴다는이보다 當席에서 얼굴이 홧홧거리니까 眞心의血書가 아니엇소—한 그마음 참으로 現金的이요 當世的이요 그리고 外交官的이오그리고 亦是 普通이오.

◇

C君 厥女氏가 구지에 실타는바이니 깨끗이 노아줄것이지 어짓발리 추군추군하지마오 오스카ー와일드의 『百萬長者의모델』 첫쭉대기에 쓰인말이 생각나지아니하오? 『연애는 富者들의 特權이지 失業者의 할일이 아니라』 고한말은 平凡하고 卑俗한 말이지만 當世의眞理인데야어찌하오 돈의額數에따러 愛情을 저울질하여 分賣하는것이 當世의女人氣質이오(男子도 그러치만)그들은 가끔가다가는 그러한 買賣에 조곰 실증이나면 一時의 異趣味로 純情을 享樂하오 그러고나서는 그『一時』가 지나면 다시 제갈데로 가바리오 그래서 그『一時의享樂』에 結局 君은 제웅이되셈이지오 그러니까 君은 억울한 일이지만 當世에 通用되는 愛情의法則上으로보아 가엽시도 君은『똔·키호ー테』의 役을 한셈이오.

◇

과실은 돈업는 사나이가 게집을 너무 지나치게 귀애한데 잇는것이니까 월은이미 글러진것……우리가 바려서 아니될自尊心이나 고히 살리어두오 自尊心조차 일허바리는날이면 알맹이빠저나간 맴이 겨질밧게는 아모것도 아니오

『너무 막막하여서 때로는 自殺이라도 하고십다』 는말로 君은 편지끄틀 막엇는데 사람이 世上에 생겨날 義務는 사러잇슬 義務는지는업는것이니까 自殺하지마를 義務도 업겟지오 그러니까 萬一勇氣만 잇다면 自殺도 無妨하겟지오 世上은 自殺을 敗北이라고하고 卑怯하다고하오 그러나 오늘날 인테리가 食糧問題에잇서서나 또는 愛情에잇서서나 가는곳마다 패배를맛고 구박을맛고 마치 喪家之狗와가튼 身勢가 되더인지라 그가 自殺을 한다는것은 自尊心과潔癖의擁護요 勇氣라고 할수잇소 그러나 인테리란 全般的으로 그러한찌는도 다 일허바리고마럿소 마치 天上의神火를 훔처내어 氷原에서 떨고잇는 人類에게준 罪로 코ー카서스山 바위우에묵겨안저 매와 수리에게 살을조아먹히고 더운暴陽 치운風雪에 苦楚를격그되 죽기조차 못하는 『뿌로메듀ー스』와가튼不死의刑罰을 밧고잇소

◇

C君 이약이가 너무 脫線이 되엇소 別로 結論지어 말할것도업스니 우에서 내가 한말이 所用이되거든 參考나 사므오. 내이약이? 하고십지 아니하오 거츨른모래를 한줌 입에집어너코 씹는맛이라고나[illegible]내生活을 比喩할른지. 어쨋거나 지나간 一年동안에 나는 꼭 十年을 늙엇소 文學的외누리가 아니라 정말로 그러하오 요지음은 왜 人間은 四十年이니 五十年이니 살게 마련이되어가지고 이러케 지리한 厭症이 생기게하는지가 절절히늣겨지오 人間은 개와 말과 원숭이의 실타고 내버린 나히를 주어보태어 七十年을 살게되엇다더니 아마 그런슬데업는 壽命을 가졋기때문에 人生의 後半은이러케 乾燥無味가하는 생각도 드오

◇

우리가 五六年을 文面上으로만 서로알어왓지 한번도 맛나본적이업서 對面을하고 다순握手라도 햇스면하는 기다림이 늘 잇섯든데 인제는 그럴機會를가지지 못하겟서서 섭섭하오 다른부탁은 업고 건강이나하오 (끗)

最近의佛文壇
X·Y·Z

『모리스·부데르』의 小說은 『케로므』以來에 異國趣味가 獨特한興味이되여잇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作品에는】 環境의 戀愛가만혓스나 新作 『근심스러운꽃달새』는 佛蘭西를舞臺로하고 거긔에 『에스토니아』의社會主義者 『몰데마르』를登場식혓다 그러나 作者의異國風俗趣味는 依然히 作品의中心이되여잇는것이다 勿論 이러한環境에는 主人公의態度가 『데모크라시』의研究에잇는것임으로 右翼作家로서의 『부데르』의 色彩가濃厚하게보이며 作者는 『데모크라시』에對한諷刺를 作中의여러곳에 보혓스나 亦是十八世紀의 諷刺家들과가티 觀念的이여서 『스위프트』나 『볼테르』와가티 高度에것이 아니라는것을 『메르』난데ー스는

【매우愛惜】 해하엿다 그러나 『부델』의 人間으로서의 長處는 그缺點을 救하엿슬는지도 모를것이다

『죠제프·켓셀』은 飛行士의生活을描寫한 名作으로서 『에키파ー쥬』(飛行士)라는 作品을내노앗든바 最近에는 그後日譚이 發表되엿는데 『飛行士의休息』이라는것이 곳그것이다 먼저作品의 主人公들은 『모ー리ー』와 『에르비용』이라는 두사람이 『에레느·드니ー즈』라는 女性을 共通한愛人삼앗는데 友情이 상하여

【作品에】 서는 『에레느·드니ー즈』는 아직 女主人公이라고는 할수업섯는데 이번에發表한 『飛行士의休息』에서는 이女子가 重大한役割을 하게되엿다

新進文藝批評家 『마ー셀·체보ー』는 그批評集『文學的脫出』이라는것이 N·R·F에서 刊行되여서 『제ー리ー·모ー니에』의 [illegible]과함께 最近에 注目할 文藝批評이다 『체보ー』의 批評家로서 가저야할 優秀한點은 批評家로서 [illegible]

【가장熱心】 [illegible] 理解하려는 讀者이라는것이다 그러고 처음부터 批評하고 그가 [illegible] 그의批評은 매우 재미잇는것으로서 『지로도ー』의小說에對한 『지로도ー』는 自己의靈力을 넘우넘게 바두려워하는것이作品가운데넘치고잇다 이것이 『지로도ー』의 作品으로하여금 男性的인것을주게하는것이다』 한것도 그리고 『체보ー』는 哲學에서 가르든것은 매우滋味잇는 觀察이다 어든 知的인正確性을가지고잇는것이 또한 批評의魅力의 하나일것이다.

探報臺
文壇意識論

文壇이라는것은 文筆로서 生活하는사람들의 職業的地帶인것이다.

萬若 그럿타면 이러한 職業的地帶에잇서서는 市場價値의 만흔사람이 豪商과갓흘것이고 市場價値의 적은사람이 小商人과갓흔 性質일것이다 그러나 지금 文壇이라는것을 돌아본다면 所謂 大家와 新人의사이에는 이러한 職業的地帶에가티處해잇는 豪商과 小商人과가티 單純한 經濟的地位의差異만잇는것이아니고 오히려 身分的인差異가잇는것으로서 실상 文壇意識이라는것은 이러한 大家와 新人과의 身分的差異의우에서 생긴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아서 萬若 이러한 文壇意識이라는말의 相對로서 文學意識이라는말을 할수가잇다면 新人으로서 大家의作品에 대한 敬意를表한다든지 私淑을하는것은 몰나도 이러한 『文學意識』이 곳 文壇意識으로變해서 身分的인差異를가질必要는 조곰도업는것이다.

그러나 近來에와서 大家와新人사이에 軋轢과不平의氣色이보인다는것은 要컨대『文學意識』과 文壇意識이 混同되여서 後者가한개의 資本主義法則을 따르려하는데 前者는 오히려 封建時代의 中世的因襲을 多分히가진때문이안일까? 더구나 文學이라는것이 封建時代에잇서서는 社會的으로 過分한榮位를 占領하고잇섯든만큼 그遺習이 그대로남어서 文人이되다는것은 다른技術者보담도 훨신더 優越한地位에나 올너가는듯한 幻想이 우에서 말한바와갓흔 文壇意識을 점점深刻化식히는것이다. 그럼으로『文學意識』과 文壇意識을 劃然이區別하는同時에 이러한 不純粹한 文壇意識은 大家나新人을 勿論하고 곳淸算하지안허서는 안될것이다 (如水)

夏期 歸鄉文藝 投稿歡迎
規定
1、隨筆、日記、紀行、實話
2、專門學校學生程度以上
3、四百字原稿紙十枚以內
4、寫眞添付도無妨
但原稿取捨는本社自由
朝鮮日報社學藝部

優秀民族의열쇠는 科學的榮養에잇다
＝米加醫師會에서 會長이演說＝

【[illegible]요ー발聯合郵信】 지난번[illegible]市에서 米國及캐나다의著名한 醫師를網羅한『米加醫師會』最初의 總會가開催된바席上最近全米醫師會會長에 就任한 젬ー스·S·마크레스타ー博士는 約三千人의 聽衆아페서 『營養과人類의將來』라는 大講演을하야 各方面에 非常한反響을이르키엿다 마크레스타ー博士의 講演을要約하면 左와갓다

『過去四半世紀間에 醫學의進步는 더욱이 營養學의 進步는從來보담도 크고 强하고 健康하고 長壽하는그우에서 知的인新種의 動物을 創造함에 成功하엿다 今後의 我等의 使命은 動物에잇서서 成功한이實驗을 人類에 應用하야體格이보담크고 보담長壽하는 그리고 高度의 文化的教養을가추운人間을가진것이 안이면안되다 그래서 이것은夢想의範圍를 지나처서이미可能의域에到達한것이다 營養學은 임이 이것을 說明하고잇다 換言하면 食物의營養價의如何에따라서 將來人類는 優秀하게도되고劣惡하게도되는다 애초부터 人間의生育에는遺傳과環境의二大要素重要한 作用을이룰無關하게되지안는다 그래서劣惡한遺傳의 조혼環境에依한改善도 吾人은認定치안으면안될다 그러나 이것은 萬人에게期待할수업는것이다 萬人에게期待할수잇는 優秀한人間生育에의道는營養이것이잇슬뿐이다 새로운科學的인 營養을가진適宜한食餌를給與함에따라서 萬人은 一律로優秀한人間에로生長할수가잇다 이미我等은이事實을動物에잇서서 確定한다그래서我等은 一定한條件만具備하면이것을人間에게 適用할수잇는것이다 그러면 그條件이라는것은무엇인가 即社會、政治及經濟의援助와이目的을 잘認識하야 社會가政府가 經濟的으로 援助를맛지안으면 我等은即刻으로이目的에 第一步를 밟을수잇다 지금全米에는 約二千萬의人間이營養價가 全혀업는 食餌를가젓슬뿐이다 이것을放置한다면아메리카民族의 將來는 念慮되는바다. 彼等을 救하는手段그것은 相當한賃銀의引上이든가物價의 引下以外에는업다 實로 我等醫學者의 使命은疾病을고치는 消極的範圍에끄치지안코 積極的으로 人類素質의改善에 나아가지 안호면안되다』

古建物巡禮(9)
最古最大한 東關羽廟
湖岩

京城에는 東西南北과 및中央의 五個所에關羽廟(그實은民間에서세운것까지八廟이지만)가잇다

이五廟中에 創建年代로

말하면 南大門外(吉野町)에잇든 南廟가 가장 먼저되엇스나 光武三年에그만 불타버리고 重建한지 가겨우 三十四年밧게 되지못한新建物이며 北廟와西廟도 近世에일우워진것으로 東大門外(崇仁洞)에 잇는東廟가 가장 [illegible]廟이다 東廟의 創建은 南廟보담 四年을 뒤저宣祖三十五年壬寅(一六〇二)에 되것이니 여기注意할것은 이東廟를 創建한해는 곳成均館안의 文廟(大成殿)의 重建이 告成되는해이다 孔子廟를 文廟라하고 關羽廟를 武廟라하면

文廟의重建과

武廟의創建이 同年에 되것은 奇異한일이다 어쨋든지 東廟建物의年齡이 現經學院(成均館)의 大成殿그것과 꼭가튼것만은 事實이다 [illegible] 年이 안섯다고하니 어느說이 可한지모르겟다 지금南廟와 東廟를 對照하야볼때 前者의緣起는 壬辰役中 明將陳寅이 蔚山戰에 負傷하고 도라와 이곳에서 治療할새 그는본대 熱烈한 關羽의 信者일뿐더러 戰爭中에 關羽가 자주現顯하야 冥助가 잇섯다고하야 寅이 關羽를 祀하드니 寅이 明國으로 도라갈때 朝鮮政府에 書記으로 宣祖三十二年己亥(一五九九)關羽廟를 세웟다 이것이

南廟創建의 緣起로京城에

잇서서 最初의 關羽廟이다 東廟는 이로부터 三年을지내서 (上述한바가티 宣祖三十五年)創建하엿는데 여기는 얼마큼 明國의 敎化를 朝鮮에 미친다는 政略的 意味를 包含햇든지 또는 迷信的으로 그리햇든지 明의 神宗帝는 日本兵의 撤退로서 關羽顯聖의 冥助한바라 하야 內帑金 四千兩을 寄贈하고 그後에 또다시 神宗帝는親筆로 『顯靈昭德關公之廟』라고

쓴額字까지 送來하엿슴

으로政府에서는 이好意를잘바드리어 金錢은建築에 補用하고 額字는 廟楣에 걸엇드니 그後 明이亡하고 淸覇가 일어나매 淸朝를 꺼려 神宗의 額字를 撤去하든지도 잇섯다 하거니와 今日東關廟에 揭額인 顯靈昭德王廟의六字는 英祖의 御筆이다

迷信이만든 그때일이라

옛날 關羽廟에 春秋二期로써祭典을 行할때 반드시 將臣을命하야 甲冑를 가추고 行禮케하엿스며 上監께서 [illegible]할 때는 반드시 親臨하사 酌禮를 行하섯다 東廟와 南廟가 그構造에 잇서서는 大差가 업스되 前者의 關羽像은 鍍金銅像임에 對하야 後者의 關羽像은 塑像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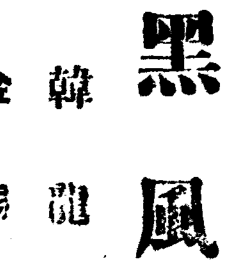
다를뿐이며 그리고 基地에

잇서서도 南廟는 一千二百六十餘坪인데東廟는 二千八百十餘坪인즉 갑절이 더廣闊하다 어대로보든지 東廟는 南廟보담 훨신 압선다 關羽廟中에 代表的이 될것이다 北廟와 西廟까지 이東廟에 合祀하게된 近年에와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여기작간말하려는것은 北廟의緣起이니 高宗께서 壬午年에 꿈속 어떤暴漢이 長劍으로서害하려할새關羽가와서救해내엿는데

꼭맛는다고 宮中으로부터

內帑金을 支出하야 關羽廟를세운것이 곳이北廟이다 그落成式에 高宗이 輦動하사酌禮를 行하엿슬뿐 아니라 그碑文을 親製하사 閔忠正公을 시켜서 쓰게하엿다 그런데 北廟를지은翌年에 甲申變亂이 일어나 高宗이 이北廟에서 避亂하섯슴으로 關羽의現夢이 더 民間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迷信하게되엇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遺址가 中央佛專이 되고말앗다 西廟는 光武六年에 嚴妃가 세운것으로 關羽바게 劉備 張飛그他諸將을 奉祀하게되바 그位置는 天然洞九[illegible] 이니 오늘날 [illegible] 되고말엇고 由 附屬한 關羽廟이 崇祀하는곳 四軒町 竹添町 廟 顯聖廟等의 關羽廟가 잇다 [illegible] 町의聖帝廟는 [illegible]

黑風 (88)
韓龍雲作 金熊超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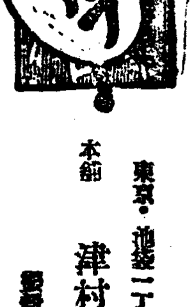
초연 5

출난은 말을이어서 『선생님은 결혼하섯서요?』 하고 밤문하얏다 『나는 아직 결혼할생각이 업습니다』 『그러면 독신주의를 가지서요?』 『그러케 독신주의를 가지는것은 아니나 별로 결혼생활을 하고 십흔 생각이 업습니다 혹은 적당한 상대자가 잇다면 사랑할 생각이 날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면 결혼할생각이 업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할만한 상대자가 업다는 말씀입니다 적당』이라는것은무엇을 표준하서요 아마 선생님의눈에 드는사람이 좆처럼 업섯지오』 하는 출난은 왕한의 마음을 도두어서 무슨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듯 하얏다

『너무 과하신 말슴입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 어서 표준을 놉히 고르는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리상에 맛는 적당한인물이 쉽지안켓지오』 『그러면 이때까지 적당한 인물을 하나도 보지 못하셧나요?』 왕한은 고개를 숙이고 무엇을 생각하는듯하더니 『꼭 하나 보앗습니다』 『어대서요』 『미국와서요』 『미국녀자여요』 『아니요』 『그럼 어듸녀자여요』 『우리나라 녀자입니다』 『어대서 보섯서요 쌘프란시스코서 보섯서요 시카고서 보섯서요 또는 다른대서 보섯서요 어대서 보섯서요 예?』 하는 출난은 흥미를가지고 뭇는다 『시카고서 보앗습니다』 『그럼 누구야요 시카[illegible]』

왕한은 출난의얼굴을 한참보더니 『한마듸만 무르신다 면 마듸를 무르시는지 모르것습니다 얼굴은 동글면서도 가름한듯하고 살빗은 눈가티흰바탕에 장미꼿가튼 불근빗을 감추어습니다 동정호(洞庭湖)에 달이 돗는대도 그러한빗은 업슬것입니다 키는 적다고하자니 조금크고 크다고하자니 조금적어서 크다고도할수가 업지마는 적다고도 할수가 업습니다』 『에그 이상도하야라 얼마나어엽부면 그러할까 그녀자가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지마는 그녀자보다도 선생님의 말씀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말씀이아니라 시(詩)입니다 그런데 그녀자를 비겨서 말하자면 누구하고 근사할까요 아마 근사할사람도 업것네요』 『글세요 누구에게 비하면 조홀까요 [illegible] 사람이 별로 업 [illegible] 그녀자를 [illegible] 녀자에게 대한 모욕입니다』

『아니야요 선생님까지 대라는것은 아니야요 대강 범위만말씀해주서요 학생이야요 아니야요 나은 멧살이나 되얏서요 이십이상이야요 이하야요 또 지금 시카고에 잇서요 다른대로 갓서요 그것만 말씀하야 주서요』 『물론 학생이지오 지금 시카고에 잇습니다 연령은 이십이내지오』 하는 왕한은 미소를 띄엇다 『꼭 한마듸만 더뭇겟습니다 얼굴이 길어요 동그러요 또얼골빗은 엇데요 희야요 검어요 키는 얼마나 커요 그말만 대답해주서요 더는 안무를테니요』 하는 출난은 눈짜위로 부터 입설까지 우슴의 흔적을 뵈이면서 긴장한 태도로 대답을 기다린다



全國各藥店에잇슴
本舖 東京·池袋二丁目 津村敬天堂

腸胃カタル의藥 柏村博士創製
ヘルプ

이러한때ヘルプ
■急性설사腹痛할때……大錠
■어쩨異常하다할때……四錠
■食後에 배속이거북할때……三、四錠
■大便後곳연히배가거북할때……四錠
■旅行中에는水土不服、食餌、時候不調로腸胃를불키쉬운때……二、四錠
■二三錠의常用은健胃整腸에有効

ヘルプ의藥効
過飲、過食、水土不服、冷腹、冷腸、氣候不調、消化不良等으로생기는……
설사 복통
토사 복창
복명 후중
腸카다루 胃카다루

價格 二十錠 [illegible] 三十錠 [illegible] 旅行用ポケット型 五十錠 [illegible] 德用 一圓 大 [illegible]

惡疫에죽지말나!
泄瀉와 腹痛에 잘듯는 ヘルプ 何故?
▼泄瀉가나는것은…… 不消化와痛壞作用이原因인故로 그냥收斂劑로一時的으로그치게한것으로는도리어身體에害가되는수가잇다. 消化와殺菌作用을完備한ヘルプ의治療가安全!
▼顏色이나빠지는것은…… 慢性腸胃加答兒때문에如何한滋養豊富한食物도설사할적마다、榮養의大部分을排泄하야漸次로身體가衰弱하고氣力이損失하야顏色이나빠지는것입니다.
▼瘦瘠하고元氣업는것은…… 腸胃加答兒때문에榮養不良이되고、自然히元氣가업서진다ヘルプ를服用하면腸의機能을整頓하고胃의消化를도아滋養의吸收를旺盛케하는때문에또元氣가發動.
▼惡疫에걸리기쉬운은…… 腸胃가健全하면惡疫菌도胃中에서撲滅할수잇슴은이미醫學上의定論이다.

이름모를버섯먹고 一家族三名慘死

二名은아직呻吟生命이危篤 平山郡月峰里에서

【平山】평산군서봉면월봉리(平山郡西鳳面月峰里)이백십오번지 민영수(閔泳秀)의집에서는 지난 십일일에 어린애가산에서 따온 이름모를버섯을먹고 신음하다가 필경십구일 오후세시경에 전긔 민영수(三七)모친신거창(慎巨昌)(六〇)누이선녀(仙女)(二)세명이무참이도 사망하고 아직신음중에 잇는아우영언(泳彦)(三)영채(?)두명이위독하다고한다

旅館周旋한다고 婦女子를誘引

【元山】지난십팔일새벽두시경원산송도원 삼송정(三松井)뒤잣근처에서 가는다란소리로 사람살리라는 녀자의애원성이 처량히들리므로 지나가든사람이 이상히녀겨 가본즉 사십전후된 조선부인이 수족이결박되여 고통하고잇섯다 이에곳원산서에 급보하는동시에 그를구출하야 경위를들은즉 그는서호진(西湖津)사는리씨(李氏)라는녀자로 지난 십칠일밤열한시차로 원산역에하차하야 시내로들어가랴할지음에 어떤아지못할남자가 방잡아려관을 주선해주마고하면서 이리저리시내를돌아단기다가 오전한시반경에 전긔장소에와서 이약이저약이하다가 갑작이성교를 강요하얏다한다 이에반항하므로 그는 곳 리씨를넘겨뜨리고 목원여의 돈을 현비강탈한후 구두끈을풀어 수족을 꼼작못하게 결박한 뒤에 다시쎗기로 목을매여 놋코 어듸론지 형태를 감치버렷다고한다 이급보를들은 원산서에서는 곳서원을 총원식혀피의자를더듬는중 원산리방면에서 가장유력한 용의자를 검거인치하고방금 엄중취조중이라고 하는데 이러케 대담무쌍하게 부녀자를 유인하야 금전을강탈하는동시에 수족까지 결박하야놋코유유히 잠적한사건은 희유의일로일반의 이약이가 되여잇다고한다

本報槐山支局主催 中朝鮮蹴球大會 오는八月十二日에

【槐山】조선의스포-쓰열은비야흐로 충천하고잇는이때 본보괴산지국에서는 지국설치 일주년기렴사업으로 중조선축구대회를(中朝鮮蹴球大會)오는 팔월십이일 괴산그라운드에서 개최하리라는데 일반은 다수 참가하기를바라며 상세는추후 발표하리라한다

無産兒童敎育機關 靈明講習所落成 全市民의赤誠으로

【靈武】함남령무시(咸南靈武市)에는십여년전당지유지제씨들의정신적로력과 다대한희생으로무산아동교양기관인 한숨강습소를설치하야 이래수백의남녀아동을교육하여오든바 수년전에당국으로부터페지명령이내리여 수백의아동은가로에 방황하며배움에굶주려허매이는참경을본 유지들은분연이 이러나각방면으로활동한결과 전주민의총동원이되여 고래로부터 내려오든각계, 재(契齋)등의 소유재산과 지방주민들의자발적의연(義捐)으로 긔본금사천 이백원이라는 금액을 모집하고 당국에 인가신청을 한바 작년십월 이십삼일부로 인가를어더 당지취렴재(聚斂齋)의 일부를빌려 동년십일월 십일일부터개학한바남녀무산아동이 일백천여명에 달하여교대제로수업하는형편이므로 취렴재의소유방일천여평에또한무상으로 교실을신축중이든바 지난달에낙성되엿슴으로 지방주교사에이전케되엿슴으로 지방주민들의 희열할은말할것도업거니와 린근지방에서까지 주민의교육열에청송이 자자하다는바 이제 동강습소간부와 의연한인사의방명은다음과갓다

設立者申彦璣 所長劉敬燮 顧問 生善水和外一人 期成會長馬斗一 副會長金庚允 委員 徐馬南外五人 李振東八百圓 張光熙二百圓 劉新業二百圓 吳仁契二百圓 彭義契一百五十圓 千秋契一百五十圓 隆會契一百圓 迫遠契一百圓 射契二十圓 銀德里一百五十圓 銀壽里二百圓 銀沼里四百圓 普坪里三十圓 禹斗一二百圓 劉義燮一百圓 劉秉碩八十圓 金承昌六十圓 陳鎬敵五十圓 金應宗 金守根 徐萬鎬 李鎔善 朴寅實 各五十圓 李榮禧 洪性勳 李丙根 申鉉道 曹文煥各三十圓 申彦進 金庚允 李春燮 朴文鎬各二十圓 朴鳳儀 李鎔薰 康孝燮各十五圓 崔相俊 申仁均 各十圓 康濟明 康文基 金始鎌 瑩昌龍 金炳庸 李東勳 金炳根 太田萬三郎 慎興吉 林橋金 朴周敎 崔炳善 成大鏞 趙孝禮 金尙龍 尹秉協 林昌龍 徐敦鎬 李恒穗 楊鎭玉 李鎔德 曹秉坤 各五圓 溫昌浩 六圓 康基萬 洪命義 朴秉龍 張道淵 金永冑 山本正一 全在弼 金基甸 李成柱 徐鳴錫 曹寬淳 中馬富三郎 吉門房美 陳炳植 徐賢錫 徐廷傑 各一圓 銀德 銀壽 銀沼三個里民戶稅倍額分擔金 一千廿六圓

亂瀧가는咸興産業社 設立無効로말성 株主五名이提訴

【咸興】함흥산업주식회사는 소화륙년십월공칭자본금오십만원 제일회불입십이만오천원으로 설치된이래 항상내분이부절하여 간부의검거재판까지바든 불상사를내이고도오히려 내분이부절하여 최근에이르러서는 민형사소송사건이 간부간에속출하여 이미하에조선인의경영계라한는 유일한 서 일반은극히우감으로생각하든바 지난십오일동회사의주주리명우(李明雨)외오명이련서로동회사대표취체역장옥(張穆玉)을상대로 주식회사설립무효확인소송을 제긔하여 더욱일방의주목을 끌게되엿다 이제그소장의 내용을간단히 소개하면 동회사에서는 제일회불입금 십이만오천원을 불입할때에 사실은 칠만원밧게불입되지 안흔것을전부불입완료된것처럼 주주등을속혀가지고 설립의결의를어든것으로 당연히그결의는무효가된다는것이다

乃城市民側에서 禮才道路反對

【泰化】지난십이일오전열한시부

南朝鮮個人庭球大會

【合德】재경당진학생학우회(在京唐津學生學友會)에서는 례년과가티 남선개인정구대회(南鮮個人庭球大會)를 본보합덕지국(本報合德支局)과 동아합덕지국(東亞合德支局)후원으로아래와가티합덕공보교(合德公普校)코-트에서열게되엿다한다

時日 八月四日午前八時
場所 合德公普校코-트
申込期限 八月三日까지
申込場所 東亞合德支局
會費 壹圓 (中食進呈)

梅陽公普落成式

【新幕】황해도서흥군매양공립보통학교(瑞興郡梅陽公立普通學校)는 사월초순부터공사에착수하여진행중이던바 드듸여준공이되여 지난십칠일오후일시에 학교관계자와 관민유지수백명이동교사에 참집하여 성대한락성식을거행하엿다고한다

火保料減下運動 例업는高率이라고 舊馬山契約者結束

【馬山】전조선에서 제일고률의 화재보험료(천분지십오)를 지불하여오든 구마산(舊馬山)화재보험계약자들은 최근에와서 보험료감하운동의 봉화를들고 맹렬히 운동하야오든데 이제그내용을들은즉 소화륙년 수도가시설된이후로 화재의손해가 격감되엿슴에도 화재보험료는 이전과가티 고률일뿐더러 한지방내에서도 신마산(新馬山)은 보험료천원에 구원을밧고 구마산은화재가빈발한다하야 천원에십오원을밧게되엿스므로 이에불평을가진구마산중에서는 구마산소방조의간부들과 신중히조사연구한결과 만장일치로 화재보험료감하운동을개시한것이며 지난십삼일에는 행정(幸町)총대평산(平山)씨집에서 구마산총대회를개최하고 협의한결과 즉석에서긔성회(期成會)를조직하고 맹운동을개시하는동시에 보험회사로서종시일관의태도를 취하는경우에는 계약자들은 모다탈퇴할결의를갓고잇다한다

地方人事

▲林春成氏(扶安郡庶務主任)新任人事次本報扶安支局來訪
▲辛洪宰氏(前扶安郡庶務係主任)全州郡에轉任人事次本報扶安支局來訪

廣州 第七回近畿蹴球大會

▲時日 七月二十七日
▲場所 廣州公普校
◇主催 京安修養靑年會
◇後援 朝鮮日報社廣州支局

醉中에말다투다 同僚를亂打致死 沙里院署犯人嚴探

【沙里院】지난십팔일오후네시경에사리원북리(沙里院北里)삼번지 이옷집에서 김경렬(金京烈)(三〇)은그 친구사십세명이 모혀 정술을먹다가 동석한장용석(張龍錫)(二三)과사소한일로서로말다툼을하다가 감정이 격화되여 장용석은 김경렬을 난타하야 진자정이되든것을 여러사람이만류하야 겨우김경렬을 그의집으로들어다가 뉘엇는데 장용석은 다시달려와서 발으로 차서 가하야김경렬은 두시간후에 결국 죽엇고 가해자는 어듸로도주하엿는데 사리원서에서 수사중이라한다

허 봉화군청중회분회에 내셔서 면민다수가 합력하여 발표구제회안, 재산도로(慶安、才山路)는 봉화군민으로 보아서딸할수업는 순억이며 매우히봉화읍내인내성(內城)발전상만대한 지장이생길것으로 이를적극반대하기로하고교섭차로 안봉군수와 윤장과도회의원을 비롯하야 아홉명이 내봉하용 긔회로 반대하엿든것이며 이어서긔봉한바와여히 내성우장원지문제로 말성이되는것은 결국결정적방침이업시 해산하고 마럿다한다

關東蹴球大會 大盛況裡에閉幕

【東京】동경신숙상무회(新宿商務會)주최와 재동경그독교청년회와 본보동경지국후원의 관동축구대회는 예정과가티 십사일오전아홉시부터 호산원(戶山原)철도국운동장에서 개최하얏는데 참가팀이열두팀에 일백오십여명이나되고 만흔동포의참관중원이잇서동경에선드물게보는성황을일우어섯든데 순전한경기라함보다도 각지산재 동포의친목원유회비슷한감이잇섯다 참가팀은 落合 東友 飯井 SM 玉子 大塚 三河 라이온 東洸 稲木 豊島 早稻田 인데 실력이백중하야 연장전에 들어가대개추천으로 승부를가리고결국 준결승전에 라이온팀과 동정단이대전하야 추천으로 라이온이 물러선결과 동세구락부와 대전하야 끝한점으로동정이 분패하야 동세구락부가우승하엿다

그女子의一生 【163】

春園 作 / 夕影 畵

방랑편

「올바 나는 시집안가요」 하고 영자가 형식에게 대하야 버티는 이면이 여긔 잇는줄을 형식은 잘 알지마는 형식은 그 려하기때문에 도로혀 반 강제적으로 이번 혼인을 매자노흔 것이엇다。 영자와 학재의 새에는 아모 연애관계도 업섯다。 학재도 연애로 장가를 사람이 아닌 동시에 영자도 연애로시집갈 사람이 아닌것을 형식은 잘 알앗다。 게다가 매우 어거하기어려운 성품을 가진 영자허구 혼인하기전에는 부부생활 는 대단히 인격이 놉흔 사람을 무사히 하기가 어려울것가탓고 또 도모지 제 몸과 제 집을 돌아볼줄모르는 학재에게는 약간 인긔적이오 심한편이지마는 조출하고 매진한영자·가튼 안해가필요할것 갓닷다。 이래서 형식은、

『어서 영자허구 혼인을 해。 자네두 인제 청년회일을 해가려면 여자교제도 만흘텐데 늙은 총각으로 다니면 세상의 실도 업지아니하거든』

하는 학재에게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이혼인을 붓처노흔것이엇다。

영자는 이왕 혼인할 바이면 임학재보다는 심상태가 낫지아니할까 하는 눈치도 보엿다。

『그게야 비교가 되나? 임학재가 금이면 심상태는 합석이야』

이러케 형식은 영자의 잘못된 인식을 정정하여 주엇다。

그러나 원체 실재적이오 현실적인 영자에게는 학재의 지사적 영웅적 긔질보다는 상태의 변호사라는 직업이 더 귀하엿다。 어듸던지 모르게 학재에게대하여서는 영자는 불만을 품엇던테다가 금봉이가 학재를 아직도 못 잇거니 하면 싀사가 나는것이엇다。

그래도 마츰내 영자는 신부로 차리고 자동차를 타고 식장으로 갓다。 금봉도 회장을곳처하고 들러리로 따라갓다。

식장에는 아까 김관진의 누이 혼인식과는 유다른 손님으로 가득 찻다。 노인이라고는 신랑신부 두집친속밧기오 다른 신식 청년들이엇다。 학재가 조선 청년회의 중심 인물인만큼 그미변 이후에새로 생긴 중견계급의 거이 총출동이엇다。 비록 청년들이라고는 하지마는모도들 새조선의 주인을 자처할 사람들이어서、 새로 된 신문사외、사장입시오 주필입시오、 자-님시요 새로 된 회사의중역입시오、무슨 회의 회장입시오、집행위원입시오、그러한이름이엇다。 이 회중을 아까 보던 머리가 허여코 구한국시대에참판이니 승지니 대감이니 영감이니 정경부인이니 정부인이니 하는 회중에 비기면 외양이나 긔분이나 전혀 딴 나라, 딴세상이엇다。 저들 속에는 공자맹자가 들어안젓다 하면 이들속에는 루소와 볼데르가 들어안젓고 간호탐스와 레닌도 들어안젓다。 저들이 가버린 넷날의 영화를 돌아보는 무리라 하면 이들은 압헤 올 영광을 내다보는 무리엇다。

신랑되는 임학재는 이날도다른 날과 다름업시거의 무표정이라 할만하게 정면만 바라보고것고정면만 바라보고 서 잇섯다。 목사가 서약하는 말을물을 때에는 그는 매우 분명한 어조로、

『네』

하고 대답하엿다。 신부의 손에 가락지를 끼울 때에도 그의 얼굴은 엄숙 그 물건이엇다。

그와는 반대로 신부는 매우 흥분한 모양이엇다。 두번이나발을 헛드듸고 목사 압에 서서도 고개와 몸을 움지겻다。 들러리를 선 심상태는 빙글빙글 웃는 낫호로 그의 쉬임을 모르는 눈은 연해회중으로 헤매고 한하에 무인한듯한 형식의 시치이 딴 태도와 얌전과 수삽 그루건인듯한 금봉의 태도가 가장 주몽을 끌엇다。 체통으로 보면 형식이가 학재보다 나앗고 아름다움을 보면 금봉이야말로 신부인듯 하엿다。 사람들의 눈도 매양신부에게보다는 금봉에게로 자조 굴렷다。 할머니가다 된드시 도모지 수삽한 빗이 업는 욕남은 연해 신부의 옷자락을 거두어주엇다

식이 끗나고 축사판이 벌어지매 젊은 지사들은이것을 연설회장만큼 여기고 소리를 질르고 제스추어를 하면서 열변을 토하엿다。 그들은 임학재의 조선에 대한 책임이 중대한것을 역설하고 그 남편을 도올 신부의 책임이 따라서 중한것을 역설하엿다。 회중의 이 신랑신부에 대한 열렬한 존하의 감정은 식이 파하고 신랑신부가 울려나올 때에 수업는 오색종의와 쌈소내기와 우뢰찬 만세ㅅ소리로 표현되엇다。

참으로꼭이 香氣다！

「네！당신아세요악가물결잔잔한곳에서뽀-트작란하던분이우리엽방에잇는부이여요
「누구말이야누구…올치올치松竹의栗島갓든그이가廊下를지내갈때이香氣와가튼香내가나든군요
「호호호果然참으로당신은敏感한데 그러치언제보거나淸新한黃"의살色은굉장한効果的인데！아무리자세히보와도白粉을발는것갓치보이지안케살바탕부터美白하게된것은全혀이것박게업다고말합데다
마스타ー粉白粉과물白粉의新肌色에對하야…大槪내가알게된것은松竹의栗島상한테서들은것이에요

浴衣에爽快
淸新한너름化粧

百番 マスター水白粉
마스타ー 물백분

七月二十日부터超特別大封切！(實寫三卷)
시카아會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로랑그가뭐라ー氏大作品！
그날밤의眞心
妖花마ー나ー로이嬢主演 巨匠와ー나바그스타ー氏
古今稀有의大戰爭悲劇을背景으로新奇妙奇한情艶絢爛!!
原作、脚色、監督리바ー드히리아氏
暴彈죤스
壯漢반크죤스氏一生의大熱演 助演다이아나싱그레아嬢
古今初有의活劇中의金字塔！ 죤스氏獨特의冒險、技能을總發揮한一生一代의大活劇
大都映畫社特作時代劇 千葉泰樹氏監督
燕お瀧
久野あかね 富士辛三郎 主演
觀鐵洞 電話光三六六 優美館

七月十七日부터 超特別大興行 自二十三日午前十一時午後二時半七時半
……特別料金……
◇佛國이나은最高의藝術的映畫 全歐一派의映畫人文人藝人을糾合하야完成한名篇中의名篇
離別의曲
로비스超大作日本版 쫘센뢰이지主演
高雅한藝術의香醉未完成交響樂以上의傑作으로推賞되어잇는宣堂한傑作！
◇新興체코스로바키아가나어노은甘美한幻想이아름다운山野와湖畔에뿔어넛는清純이수노아진黃金篇！
아밀아ー빠라코바主演
첫사랑(日本版)
◇大朝世界뉴ー스
永遠의青春 나는것 그대는밤 盲目의飛行士 大學의리출
名 期 待
全鮮第一映畫殿堂 電話光九七 團成社

七月十九日より短期特別公開
中元大入御禮御禮のため特に大衆番組
原作春島眞砂兒 監督服部眞砂雄 新星背柳龍太郎主演映畫
曉の復讐
遠山龍之介、久松玉城 横山文彦、植松藤兵工 共演 霊井三郎、春水羅子
映畫界を風靡せるエルンストルビツチ一代の快作パラマウント代表の映畫金字塔
パラマウント超特作全發聲日本版 エルンスト・ルビッチ畢生傑作品
生活の設計
フレドリックマーチ ゲーリイクーパー ミリアムホプキンス 共演
大都映畫超特作現代映畫 原作谷?監督大江秀夫 ハヤブサヒデト猛闘主演
裏街の大統領
大河百々代、清水明 高村榮一、橘眞久子 宮城浩二、松村光夫 共演
お待ね兼ね鳥人ハヤブサヒデト跳躍の大肉彈猛闘劇突如封切
鳥人ハヤブサヒデト得意大活劇純情の娘奈さ子のためにギャング團を向に廻して銃火閃めく大爭闘劇
櫻井町 電話本局八〇 大正館

◇七月二十日낫부터대公開！
大衆料金 階上十五錢均一 階下十錢
土曜、日曜、祭祝日은畫夜二回니다
今日부터七時三十分始演！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봄의멜로듸 全八卷
監督…노만마크라우드氏 主演…질스타코스氏 메리…랜드 라ー니로ー스氏
◇新興키네마社特作無聲映畫 時代活劇
어둠의江邊 全十卷
監督…封封氏 主演…鈴木澄子
◇아로社映畫 喜劇
死物狂 全一卷
主演…빼아리윌스氏
◇次週는七月二十三日부터 로이드活劇
桃花劇場

經濟解說

쌀갑은 어듸로

四國事情은硬材

中泰晧

요재 쌀갑은 매우 빗싼갑을 나타내이고잇다 그래서 市中小賣商에서 一等米를 한가마니에 十四圓七八十錢의 노픈갑을 불러 十五圓을 相當함이 二三十錢에 不過하다 이狀態로 보아서는 端境期까지 갈것이니 目前에 잇서 近年에 처음보는 高價가 나타나지안흘가 생각을 할수도 잇게되어잇다 그런데 쌀갑의 거롱을 보면 實際에잇서는 세이면서도 한便으로는 마음것 敢히 暴騰을 펴지못하고 相當히 주춤거리는傾向도 잇는것이 看過치못할點이다

×

먼저 오늘에잇서 쌀갑이 노픈갑으로 나타나게된 理由가 엇더한것인지 따지고가야할 터인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今年米穀需給關係와 今年米作豫想의 두가지로 나누어서 말할수가 잇다 卽 첫재로 日本內地는 昨年의 大凶作으로 今年米穀年度中의 米穀需給關係가 어떠케될가 함에對하야 一般은 만흔關心을 가지고잇섯다 다시 말하면 昨年十一月로부터 시작되야 今年十月末로써 끗나는그동안 米穀需要에對하야 그供給量이 圓滑히 될가 或은 不足케될가 하는 궁금히생각하엿든것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往往 實際的數字에잇서 供給이 不足을 보게될 心配는 勿論 그러치안코 數字上으로 十月末에가서 多少餘米가 잇다고하드래도 그數量이 적을 뿐에는 端境에 對한 供給의 不足으로 實際에잇서 供給不足과가튼 結果를 보게된다는것이다 그래서 需給關係를 말할때에는 大概 端境期의 殘米 卽 持越米가 만흐냐 적으냐는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알라고하는것이다

×

그런데 日本內地의 今年米需給狀態를 보면 端境期의 持越高는 九百九十餘萬石으로 約一千萬石의 程度에 達한다 이것으로보아서는 米穀需給은 圓滑을 缺치 안흘것가티 생각할수잇다 그럿치만 이 持越高一千萬石의 그全部가 民間에서 마음대로하는것이 아니라 實際에 民間의手中에 잇는것은 百四十餘萬石밧게 못되고 그밧게의 八百五十萬石이란 만흔數量은 政府의 所持米로되야 容易히 드러나오지못하는것이다 그럼으로 端境期持越量이 相當한 數字를 보히지만 實際에잇서는 그數量을 悲觀하는 傾向이 만케되는 理由가 이곳에잇고 따라서 쌀갑은 노픈갑스로 向하는 勢가 만케되는것이다 그러고 今年米作의 豫想如何를 아즉 말할수 업다고 하나 最近의 情報를 綜合하여보면 日本內地는 豐作이 어려울듯이 만코 또는 朝鮮에잇서도 今年은 旱魃로 豊作으로 볼수 거의 업는데가 가온狀態이라고한다 그와가티 今年米作의 豫想이 어려운을 맛어서 이것도 쌀갑의 騰勢를促進케하는 傾向이 잇서보인다

×

이처럼 兩國事情이 노픈갑으로 달리게하는 材料인데 쌀갑시 왜 한便으로는 주춤거리는가 하면 이것은 政府所持米九百九十萬石을 무서워하는 때문이다 卽쌀갑시 繼續하야 노픈갑을 나타내며 最高公定價三十一圓五十錢을 完全히 上廻케되는 境遇에는 政府로부터 그 高價를 눌르기爲하야 그所持米를 내여팔게될것이다 그러서 쌀갑을 노픈갑으로 올린에잇서 政府米의 拂下를 恐내여 警戒의맘이 압흘스게되고 딸어서 오늘의米穀事情과 實際의米價는 併行을 못하게되야 주춤거리는時勢가 생기게 되는것으로 본다

×

그러면 最高公定價의고개를 完全히 너머스지못하고 어느때까지 이近處에다가 警戒線을 베풀고만 잇슬것인가 함이 오늘에잇서 가장 深刻한 注意를 끄으는點이다 그런데 이에對하야는 두가지로 볼수 박게업다 卽첫재로 現狀을가지고는 요새의程度에 끄치지 안흘가 한다 왜그러냐고 하면, 九百九十萬石이라는政府所持米가 잇는마큼 一般人氣가 아모리 여그以上의 騰勢에 追從을 避케될것으로보는點이다 둘재로는 今年豊彩이 만약 惡化되거나 或은 政府의 態度가 米價調節에 後退하지못하게될 境遇는 端境期의 接近을 따러서 米界大動搖을 나타내이게 될는지모른다 이때에는 米穀統制의 異常을 보지안흘것을 壯談키도 어려운것이라고생각한다

◇米價消化力限界休載

過度한米價高로 政府對策이緊急

今月末內米穀統制會開催

朝鮮內在米乏深刻

今月末內로 米穀統制委員會를 열어가지고 八月以後의 米價對策을 決定할모양이라고 한다

이번米價暴騰의原因은 朝鮮産地의移出이 만허各埠頭에 在米가적고高價豫想에依한買惜態度가 不變하야 正租一斤에 八錢七厘라는 珍高價를 呈함에依하야 品薄이日本內地보다一增 甚한關係上朝鮮各定期市場이 暴騰되고大阪市場까지 暴騰케한것이라한다 그리하야 大阪期米當限은 十九日後場에三十二圓丁이란 高價를示하야最高公定價(大阪期米標準米로는 三十二圓〇二錢)를二錢넘기엇슬뿐으로 最高公定價를 突破할것이豫想되는만큼 政府로서 이에對하야 어떠케든지態度를 決定치아니치못하게된때문이라한다

朝鮮製糸協會 一割操短決定

原料繭不足으로期間은一個年

女工失業問題擡頭?

朝鮮製絲協會에서는 十八、十九兩日에亘하야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製絲業이直面한 諸問題、就中産業組合의 繭購入、自由繭市場、仲買人問題等에就하야 愼重熟議한結果 原料繭의適備現狀에鑑하야 朝鮮斯業界에 最初일뿐아니라도事業界에서도 異例에 屬하는操業製絲의 一割操短을實施키로決定하얏다 右는原料繭의 不足으로不得已한것인데 一割封印實施는 右에伴하야 職員女工等의 失業問題도 當然擡頭할터이므로 重大視되는데 一割操短의 期限은大體一個年이오 右適用은製絲協會加盟工場(郡是製絲全部)을 包括한것이라한다

朝鮮初有의 操短한事情

共販不振이主原因

別項朝鮮製絲協會가 稀有에屬한 一割操短을 決意키에 至한것은 原料繭의不足이 重大原因인바이 原料繭不足은 共販不振에 原因하고 共販不振中에는

一、産業組合의進出=明紬機業原料로서 産組가活動하고 平南德山을비롯하야 永興其他와如함은 出廻皆無인 共販不振을 現出하얏다

二、繭仲買人의跳梁=繭仲買人이 原料繭을狙하고 投機的買入을 行하야 原料封鎖에出하얏다

三、自由市場에의 繭流出과國家繭商人의 投機

라는特殊原因이잇스며製絲業의將來에處하여서도큰問題인데製絲協會로서는 斷然操短決議를하는反面이特殊的原因의 排除運動을大大的으로 惹起할意圖이라한다

總督府서도 形勢重大視

製絲協會의 一割操短問題는 當局도 그形勢를 重大視하고特히 農政課에서는 繭共販制의再檢討에 就하야 考慮하고 一方明紬製造의産業組合의 購繭問題에 關한 實情調査를行키로하얏다

大藏省預金部 運用委員會開催

【電通東京電話】大藏省預金部에서는 今月末에 今年度第二回運用委員會를열豫定인데 特히財政限化가 甚함으로 支拂不能케될 地方의 旣往融資中 公共團體三千萬圓餘地整理組合 四千萬圓에 對하야 償還期限을 모三來年度로부터 向三十個年延長케할事를決定하엿스므로 그러고 同委員會에附議키로되엇다 그러고 同委員會에上程될 決議事項은 다음과갓다

一、昭和十年度外地普通事業資金新規繼通 朝鮮四百萬圓 臺灣百五十萬圓 樺太五十萬圓

二、朝鮮米增殖資金一百卅萬圓

三、東北震災復舊並復興資金六百十二萬圓

四、罹災者中小商工業資金五百萬圓

五、東北後地方震災救濟條件緩和=一千萬圓

一、對支借款中條件緩和=一千五百萬圓

中旬對外貿易 二百五十萬圓入超

【東京電話聯合】七月中旬對外貿易槪算은 알에와갓다 (以下單位十圓)

輸出	六七、一七六
輸入	六九、七〇五
合計	一三六、八八一
差引入超	二、五二九

米日爲替强保

【京城十九日發聯合】十九日의米日爲替는 前日에比較하면 [illegible]

爲替管理를 中國斷行?

宋氏가外銀에言明

【電通上海二十日發】中央銀行總經理宋子文氏는 十九日 正午 各外國銀行支配人과 會見하고 最近益益擴大하는 爲替近物과 先物의差를 縮少키爲하야 中國政府銀行(中央、中國、交通三大銀行)으로 하여금 二十日부터 磅의乘替差를 一個月마다 八分一로하고 他國同爲替도 이에準하야 差를決定할터이라고 言明하엿다 이것은 一種의爲替管理로보며 中國政府의 抱懷한 爲替貿易管理案의 一端을 具現한것으로 爲替市場에 相當한 影響을 줄것이라고한다

石油値上을 會社斷行意向

商工省遲延境遇에

【電通東京電話】過般石油七社의 共同請願에 對하야 町田商相은 事務的으로 値上容認의 態度를 示하면서社會的政治的影響의 重大性에鑑하야 故意로値上을 遷延케하고잇슴으로 石油業者는 單獨値上의 決意를 堅固케하기에至하얏다 石油業者는 貯油設備에 要하는銀行의 融資는石油値上에 依한業績恢復이 條件임으로 今日과如히 石油業者에게 貯油義務를負擔케하야 石油의 値上이 될수업는 現狀으로는 苦境에 陷하는 外에 업슴으로 日石이 中心이 되어 一兩日中에 商工省에 訴코저 協議中인바 當局에서 이以上 値上을 遷延케하면 石油會社는 單獨으로 까소린建値値上의 態度를 有키에至하얏다 過般의共同請願書에는 까론七錢値上의申請을 商工省當局에提出하얏섯는데 그것으로는 統制法의公益規定에 抵觸될念慮가잇슴으로 現行價格에對하야 까론三錢五厘程度의値上을하고 公益規定의適用을避하자는것으로 從하야 商工省과石油業者와의交涉은 極히注目된다한다

二十九弗二十仙으로 一仙高買 二十九弗十八仙으로 一仙高

▲東京爲替(二十日)

對米 買賣 二十九弗八分一 二十九弗十六分三

對英 買賣 一志二片三十二分三 一志二片三十二分五

▲大阪爲替(二十日)

對米 買賣 二十九弗八分一 二十九弗四分一

對英 買賣 一志二片三十二分三 一志二片三十二分五

▲製造煙草賣渡高

【專賣局發表】七月上旬製造煙草賣渡高는 合計九十九萬三千六百四十四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十四萬七千二百八十三圓의 增加인데 이各支局別은 京城四十一萬八千六百五十三圓 全州二十二萬千二百二圓 大邱十六萬三千百四十三圓 平壤十九萬六百四十七圓의 成績이다

經濟界消息

○三井物産株主總會=【電通東京電話】三井物産會社에서는 十九日 午後 定期株主總會를열고 當期決算案(配當年一割据置)을 附議可決하엿다고

○淺野세멘트六分据置=【電通東京電話】淺野세멘트에서는 十九日 本社에서決算重役會를열고 當期利益金處分(年六分配當据置)를 定하엿다고

○米穀局外地課長異動=【電通東京電話】農林省米穀局經理課長平岡梓氏는 外遊할터임으로 十九日 알에와가티 異動發令되엇다고

農林省米穀局經理課長 平岡梓

命米穀局外地課長 米穀局外地課長 中尾桂一郞

命米穀局經理課長

鮮航同盟會

◇……解散? 改組?

【神戶電話聯合】「鮮航同盟」에서는 十九日神戶에서 緊急幹部會를開하고 今後對策을 協議한바잇섯는데 同盟內에도 相當한對立이잇서 議論하야 二十日會合을續키로되엿다 卽近來朝鮮米積取는 盟外船屬配에依하야 同盟船은 定期船復를 超過할에不過하고 이때문에盟外船의 運賃은 有利히展開하고잇슴으로 同盟內에서도 海上運賃을有한 各社와如함어 同盟解散論까지 唱導하는一方 對殼聯關係도 同盟의一方的破壞에 依한 運賃決定其他로 對抗運賃問題로 悲觀的으로 觀하야 今後運賃을 變更하야도그效果가疑問이라는 狀態에至하얏슴으로明年三月부터更히三個年의存續을 決議하얏든同盟도結局은解散乃至改組에至할것이라고 보이더한다

尼崎脫退

正式으로承認

尼崎汽船의『鮮航會』脫退申出에 對하야『鮮航會』正副會長은十九日午後尼崎本社에赴하야 一應慰留를勸告하얏스나結局飜意키에 至치못하얏슴으로二十四日評議員會에서正式으로承認키로되엇다한다

▲脫退事情 尼崎汽船이同盟强化를 背反하고突然『鮮航同盟』을脫退키에至한것은 同社配船이 仁川阪神間을中心으로 行하고잇는때문에 鮮米受荷主의 同盟會所屬船不受決議에 걱정이되엇든際에 丸仁穀物協會員으로부터 好條約으로特殊契約의勸誘를受한 때문에二十日의同盟會評議員에게 存續期限三個年延長이決定된것을 豫想코 其束縛을 避키爲하야十八日 突如脫退를 表明하기에至한것이라한다

總督府는 依然靜觀

▲堂本商工課長談

尼崎汽船으로부터 鮮航同盟脫退의 人事電報는 督도總府에 왓다 當局에서는繼續하야 그趨勢를靜觀할뿐이라 사우는이때에 調停하는것은 結果가조치못하다는便이 疲勞할때에調停하자고 調停하면 成功할수잇다 鮮航同盟의崩壞라고는全然생각지안는다

三社의脫退說

岡崎、澤山、飯野

尼崎의脫退에다음으로 岡崎、澤山、飯野의三社도鮮航會脫退할 機運에 傾한다는情報가 阪中인 加藤仁穀會長으로부터 仁川荷主에向하야 情報한모양이라고한다

結局存續契約

飯野、岡崎、澤山三汽船의脫退는 結局實現치못하고 二十日에 三個年 繼續契約에 調印하엿다

本底入되는法

六月十九日의 東京東新百三十一圓七十錢이 大底라하야 氣强한모양이오 七月十六日 百四十圓三十錢까지 올라보앗스나그幅이 十圓幅도 못되고겨우 八圓六十錢幅에不過하얏스며 다시百三十六圓臺로 反落된것을보면 强氣를云爲할수업슬것이다

由來東新이 本底入이리라면적어도한場에 十圓幅內外의 一氣飛躍이잇고나서 大引一本에 十圓幅內外의 一氣跳返이잇서야할것이 東新歷史에 비취어 거의 定規라하여도 過言이아닐러이다

價位如何、取組如何、材料如何에 不拘코 언제던지 十圓幅의飛落跳返이한場동안에 잇스면그는틀림한 本底入인 러이오 그反對로十圓幅의 飛騰直後 十圓幅의 一氣飛落이잇스면 그는틀림한大天井이되는것은 누구나 아는일이다 그럼으로 十圓幅以下五圓內外의 波瀾으로는 大底大天井이되는法이업는터이다

昨年十一月八日의 當地東新百十九圓八十錢 東京、東新百十九圓九十錢이 大底가아니라는것도 卽말하자면 그날의東京步調를보면 後場가百二十圓三十錢으로서 百二十一圓丁을高價로 百十九圓九十錢低價대로 大引되고 十圓幅의一氣飛上이 업섯다는點에 根據를둔것이다

從하야 이觀點下에서보드래도 어재던 東新은 十圓幅의跳返이잇고나서야만 비로소 買時代에 入할것이라하겟다

今日財界 (二十日)

◆米

仁川期米	先限	三一·六六	一四低
大阪期米	先限	三一·六六	一六低
正米(仁川)	一石	三一·〇〇	不變
一斤價在來		[illegible]	

◆市中金融價

一級貸	十四錢
一級貸	十二錢五

◆株

東新		三七·八〇	二〇低
鐘新		三一·七〇	[illegible]
日産		六八·九〇	二〇低

◆商品

大阪綿絲	一九九·九〇	六〇低
大阪綿花	三九·〇〇	四〇高
大阪人絹	一〇〇	不變
大阪砂糖	[illegible]	
大阪紗	[illegible]	
現	三三二·〇〇	先完

株式 漸落裡에 下澁

商況(二十日)

前場鈍調

前場은 休日을압두고今日 賣人氣로 東新百三十七圓丁 大新八十三圓四十錢에 떠러지고나서 押目買와 突込警戒로下澁하야 結局昨後引에 比하야 東新二十錢低인 百三十七圓八十錢 日産도二十錢低인 六十八圓九十錢 大新十錢高인 八十四圓十錢 鐘新二十錢低인 二十五圓五十錢에 各大引되고 九圓八十錢一本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後場休會

後場은 例會인데

大阪短期氣配가 十錢高、低或不變이엇슴으로 當地도保合이오 入超減의好感도 別無이엿다

軟派虎視耽耽

東京東新이 十六日百四十圓三十錢에까지올라 活躍이期待되엇스나 幾來反落不勢이더니 今前場은百三十六圓五十錢에까지 떠러저 三圓八十錢押이엇다 夏枯閑散期로 小市勢觀이 流行하는때문에買로는低價가업스리라보며 百三十四五圓臺에는 押目買物이相當히潛在한듯도하나果然이採合市勢를買함것이妥當할가 東京地場은客의 賣注文을吞하고一段賣煽하야 客을亡케하야할 處地에잇슴으로 別로下落이잇슬것같지안타는것이 押目買論의一理由인듯도한바 弱氣로서는 어듸까지던지未底入된것이라하야 戻賣得策을主張코비록突込은警戒지만 權만잇스면一擧長驅코저虎視耽耽인모양이엇다

目前無妙味?

東京株에對한 人氣가 堅實한것에는 採算再檢討로 押目買人氣인까닭에 東新도 深押이업다는結論이 만흔듯하나 東新은下押主力株다운 大幅市勢가어둔것과가티 上市勢時代에 잇서서는 大幅市勢가 至極히 [illegible] 東京서는 外來者의 賣는마치안가업스리라는 人氣가 强한마큼 華畢 浪할수업고 從하야 妙味도東新이 全體量의 [illegible] 가업지만 百四十圓의 東新은 割高이기 때문에 積極的買는것이잇지만 探算으로 買妙味가 잇다면 目前東新은 結局妙味업는 氣味致잇고 當分 夏枯採合閑散이되라고 救息하는 사람도잇섯다

大阪短期取組

	賣方	買方	取組高
日産	三八	五一	五〇、一六〇
東新	四〇	五二	七一、一〇〇
大新	三六	五五	一七、七九〇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二百枚)

▲滿洲工廠[illegible] ▲大同電力新[illegible] ▲日滿아루미[illegible] ▲昭和人絹[illegible] ▲戶[illegible]鑛物新[illegible] ▲朝鮮新[illegible] ▲人造羊毛[illegible] ▲小野田세멘트新[illegible]

東京國債市場

【電通東京電話】休日을압두고氣乘치안코 市況은閑散保合이엇다

▲甲五分利一〇四、一五▲一回四分利不申▲二回四分利不申▲ ▲佛貨四分利一八六、六〇

期米 反弛後에 更進

前場反弛

昨後場阪地三 [illegible]

後場更强

後場은 二十九圓五十六錢에 同價寄後 漸進步調로 五圓六十四錢에 올느고六十八錢에止揚하다

中間呼吸狀態

公定價接近으로

昨後場大阪先限은 三十一圓四十二錢當限은 三十二圓丁의 高價를示하엿다此에는 最高公定米價의接近으로由한것인지 不知中伸惱狀態로 二十餘丁의反落을 告하엿다 最高公定價格三十一圓五十錢은京城의一等米를 標準한것으로 大阪市의標準米인 攝津三等米는 三十二圓〇二錢에 該當하고東京市의 標準米인 埼玉縣一等米는 大阪同樣으로 亦是三十二圓〇二錢에 該當하게되는 關係上 昨後場阪地 當限三十二圓은 最高公定價에 比하야 겨우 二丁不足의 高價임으로 買方으로서도 安心買를 하지못할뿐아니라 此를亂爭한 賣方은 絶好의 賣場所라하야 作戰不怠하는모양이다 勿論公定價格의 障壁으로 보아서는 買方으로서의 活動할 餘地가업스나 그러나 各地의在米가稀少로 品賃향을보아서는更히賣買成할 餘力이업음으로市勢는當分間呼吸의 狀態로 低落을告한다할지라도 四五十丁程度에 止할뿐으로 結局再燃의形勢를보이지안홀가한 商談이多하다

一押은當然

騰勢의反動으로

新甫九限이 發會以來阪地는約百四十丁의反騰을 示하고當地는百五十餘丁의 反撥을 示하엿스며去六月中의 當地低價인 二十六圓七十五錢에서 보면實로三百五丁의 大暴騰을 示하엿다 阪地市勢는 最高公定價格에 接近하엿슬뿐아니라 爾來堂島市場의唯一한强派로 擱指하든 田中貞一一派는 一時三十萬石의 大買物을擁護하더니 昨今의高價를機로利食賣에 出하는것도잇다 [illegible]

堂島前場下押

【大阪電話】最高米價接近에依한價位觀으로 氣迷이오 主力의優勢買도 不拘코地場軟派의 利喰으로 下押이엇다 冷氣에依한作況念慮와 日本內地品薄의 强材料로 買方의利喰이 急함으로 玉關係도 順調로 整理되어目前一段高는難免으로보이는데 最高米價에 接近한때문에 無氣味한市勢이엇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强調

品薄高期로思

地場東京側、地場利喰、北國側 賣方 中東側、三木 買方 神戶側、高橋、木村自己、神戶側

仁川上伸

淸算小幕이나마 感情의持直가强하고 淸算의餘狀을보고도 氣配十錢高의强調를 示한(?)三等三十一圓丁 四等二十九圓八十錢 一等白米二十一圓七十錢

釜山軟上

市場現物 三千叺 日本內地의換下擴張으로 神[illegible]側、移出側、需用側의買氣가强하고 取引은進捗한模樣이다 氣配十錢高인 丸仁三等三十圓丁 四等廿九圓八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三十錢

大邱不變

淸算一息이나마 精米原料難으로 米實을 買付하고잇는데 淸算緊迫良米의 本格的不足으로써所持의態度가强하고 取引이三六〇叭의閑散이나마 市場은更히 二十錢噴上인 角丁三等三十一圓丁 四等九圓六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群山小落

週精八幡最高米精米側의 買惰人氣强硬으로 市況이閑散하야 推移되어 取引皆無의 場面인 角丁三等九圓四十錢 四等二十九圓十錢 一等白米十一圓九十五錢

木浦小弱

産地出盛으로市中의品薄이深刻하고 當用側의買價에接近하야 朝鮮米의拂下豫想으로買氣가極히 委縮되어이오定期의軟調와相俟하야氣配十錢低唱인 菱ク三等二十九圓八十錢 四等二十九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三圓二十錢

南浦硬化

定期不昧를보고 賣物皆無로 氣配十錢硬化인 ⊕鶴尾三等廿九圓六十錢 四等廿九圓四十錢 一等白米十一圓九十錢 等三十圓九十錢 四等二十九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五十錢

市場六感

株 東新은弱하고日産은底强▲中旬入超가二百五十二萬九千圓으로 減하얏는데 아즉下期貿易繁觀은尙早 ▲實物取締의 準備工作으로總督府商工課員이 東亞證券等二三店을十九日에와서 觀察하얏다고▲어떤意味에잇서는 短期取引보다는 實際에잇서投資的인實物取引에 對한嚴重한取締가時急한것을늣지도못하고 下値로크지안흐리라면 夏枯閑散採合이겟는데 그다음에올것이 무엇이나가問題▲採

米 一時三十萬石의大買物을擁擁하엿든阪地田中貞一派는挽近高價를맘아每日二三萬石식利退하고남은石數는 不過六萬石程度라나▲不日內로 그六萬石도利退할뿐아니라受米十二萬石을 가지고잇는마큼 定期에賣繫하기가十常八九일것갓다고 그軟派는看破하고잇다 ▲그리고元來軟派의巨魁인山種一派는 某精米側과提携하야 政府米百萬石拂下를請하엿다나 ▲政府는昭和八年度産米一千餘萬石을 買上할때에最高公定米價에 接近하는대는民間의 申請에依하야 拂下하기로 旣히聲明한바잇스니山種一派의 申請에應하지안흘수도업슨處地▲米統制에依하야적어도 政府米六百萬石은 保存하여야할政府로서 實로處置하기가困難▲山種側의 要求에應하는때는 그外의申請에도 應하여야할모양이니 何如間政府는큰頭痛꺼리▲이러한 弱材料가 續出하는 此際인마큼一落은 免치못할모양 그러나 大押은難面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 電話長 九一六 六九三 一一六五

金融 二十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illegible]

米穀 二十日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二十日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絹布 ◆東京綿布價 ◆日本麥粉 ◆天ヲ丑期麥 ◆鐵道炭價 ◆錦紗糸相場 ◆滿洲商況 ◆大連特産 ◆北海道入一箱

[illegible]

株式 二十日

◆朝取短期 ◆朝取定期實物 ◆東京短期 ◆東京現株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大阪短期氣配 ◆大阪長期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期米 二十日

◆朝取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日本各地期米 ◆朝鮮內各地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商品 二十日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illegible]

仁川米期 福 吉村取引店

金白地 金金銀 高價買入 京城明治町一ノ五九 京城兩宮金銀店 電長本三八二三番 電車明治町一丁目下車